

2015. 1. 1 ~ 2015. 12. 31
<http://council.haeundae.go.kr>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선진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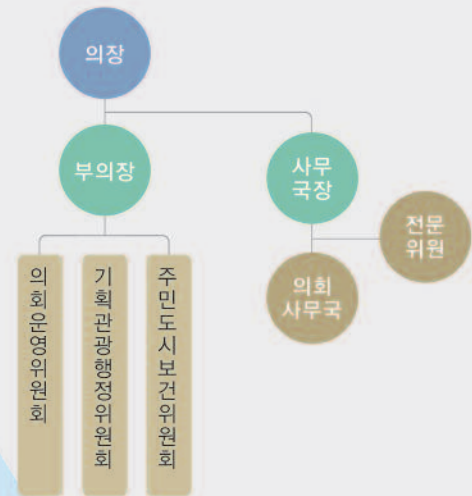
해운대구의회
HAEUNDAE-GU COUNCIL

7대 의원현황

CURRENT MEMBERS
OF THE COUNCIL

(2015. 1. 1~2015. 12. 31)

조 직 : 3상임위원회, 1사무국
의 원 : 17명(지역구 15명, 비례 2명)
직 원 : 17명



의장 이 문 환

Chairman



부의장 이 명 원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
Vice-Chairman



임 말 속
의회운영위원장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



황 병 두
기획관광행정위원장



심 윤 정
주민도시보건위원장

우리는 해운대구민 여러분의 일꾼입니다.
투명하고 깨끗한 의정활동으로 작은 약속부터 하나하나 실천하며
살기 좋은 해운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Through practicing transparent and clean activities one by one,
we will make Haeundae a place to live well. We are your workers.



한 병 철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



김 삼 수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유 점 자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최 영 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



서 창 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조 영 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서 정 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홍 성 운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



오 경 미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



손 유 정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정 성 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서 강 식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선진의회



세대와 공감하는 열린 의회
미래를 지향하는 창조 의회
구민과 함께하는 선진 의회



Contents

해운대의정 HAEUNDAE COUNCIL

- 02 의원현황
- 08 인사말
- 10 해운대구 현황
- 11 의회연혁
- 12 의안처리
- 20 의원발의
- 26 구정질문
- 42 5분 자유발언
- 68 의원칼럼
- 79 의정 스케치
- 86 의원동정

제9호

2015. 1. 1 ~ 2015. 12. 31

발행인 의장 이 문 환
발행 해운대구의회
편집 의회사무국

해운대구의의회
HAEUNDAE-GU
COUNCIL

세대와 공감하는 열린 의회
미래를 지향하는 창조 의회
구민과 함께하는 선진 의회

Greetings by Chairman

현장 중심의 열린의회가 되겠습니다.

43만 구민 여러분의 기대와 성원속에 제7대 의회가 개원되어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는 구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인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에서 성과를 이루었지만 잘한 일 보다 미흡했던 일들에 대한 아쉬움이 더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운대구의의회 의원 들은 현장 중심의 열린의회라는 슬로건 민생 현장을 발로 뛰면서 구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고자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간다는 심정으로 성실하게 일해 왔으며, 집행부가 구민 위주의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견제와 균형 그리고 올바른 정책방향 설정에 협력한 결과 해운대가 전국에서 가장 살고 싶은 도시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는 그동안의 실적에 만족하지 않고 구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항상 연구하고 공부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손 잡고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 우리 의회가 지금까지 나름대로 의욕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적극적인 관심 덕분이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비전과 변화를 이끌어 내는 열린의회, 정책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운대구의의회
의장 이 문 환

제9호

2015. 1. 1 ~ 2015. 12. 31
<http://council.haeundae.go.kr>



| 해운대구 현황 |

해운대는 우리나라 최남단 해양수도 부산의 관광지로 신라말의 석학 고운(孤雲) 최치원 선생의 자(字) “해운(海雲)”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해운대는 해수욕장, 동백섬, 달맞이 언덕, 해운대 온천 등 산과 강, 바다와 온천이 있는 사포지향(四抱之鄕)의 고장이며 관광의 도시입니다.

컨벤션·영상·해양레저 특구로서 달맞이온천축제, 모래축제, 바다축제 등 사계절축제가 열리고 아쿠아리움, 요트경기장, 벅스코와 미술관, 갤러리, 추리박물관 등 각종 문화·관광시설이 있는 부산의 문화관광중심도시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는 영화의 전당, 초고층 주거단지의 마린시티와 센텀시티, 국제 전시·컨벤션 센터인 제1, 2벅스코가 조성되어 있고, 휴양과 레저와 쇼핑 시설을 갖춘 101층 해운대관광종합리조트와 IT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는 매력 있는 세계일류도시입니다.

지하철 2·3·4호선, 광안대로, 부·울고속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동부산권 교통물류 요충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 인 **구** : 약 423,531명
- 면 **적** : 51.45km²(부산 768.4km²의 6.7%)
- 행 **정** : 4국 1실 1담당관 1단 19과 96담당 1보건소(2지소)
4사업소 18동, 의회
- 공 **무** : 905명(공무원1인당 주민수 498명)
- 재 **정** : 4,126억원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선진의회
<http://council.haeundae.go.kr>

꿈과 미래가 있는 희망찬 해운대를 만들겠습니다.
행복이 넘치는 살기좋은 해운대를 만들겠습니다.

| 의 회 연 혁 |

제7대 해운대구의회 2014~2018

2014. 07. 16 제7대 전반기 의장단 구성(2014. 7. 16~2016. 7. 15)
의장 : 이문환(李文煥), 부의장 : 이명원(李明源)
2014. 07. 01 제7대의회 개원
2014. 06. 04 제7대의원 선거(17명 ☞ 지역구 15명, 비례대표 2명)

제6대 해운대구의회 2010~2014

2012. 07. 06 제6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2012. 7. 6~2014. 6. 30)
의장 : 이안호(李岸鎬), 부의장 : 홍성운(洪性雲)
2010. 07. 06 제6대 전반기 의장단 구성(2010. 7. 6~2012. 7. 5)
의장 : 라외순(羅外順), 부의장 : 윤병주(尹炳柱)
2010. 07. 01 제6대의회 개원
2010. 06. 02 제6대의원 선거(17명 ☞ 지역구 15명, 비례대표 2명)

제5대 해운대구의회 2006~2010

2010. 01. 01 위원회 명칭 변경
(기획주민행정 → 기획관광행정, 관광환경도시 → 주민 도시보건)
2008. 07. 05 제5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2008. 7. 6~2010. 6. 30)
의장 : 안상호(安相浩), 부의장 : 정성철(鄭成徹)
2006. 07. 06 제5대 전반기 의장단 구성(2006. 7. 6~2008. 7. 5)
의장 : 박선동(朴先同), 부의장 : 서강식(徐江植)
2006. 07. 01 제5대의회 개원
2006. 06. 30 위원회 명칭 변경
(기획총무 → 기획주민행정, 사회도시 → 관광환경도시)
2006. 05. 31 제5대의원 선거(17명 ☞ 지역구 15명, 비례대표 2명)

제4대 해운대구의회 2002~2006

2004. 07. 09 제4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2004. 7. 10~2006. 6. 30)
의장 : 김용환(金容煥), 부의장 : 정장춘(鄭長春)
2002. 07. 10 제4대 전반기 의장단 구성(2002. 7. 10~2004. 7. 9)
의장 : 김영수(金榮秀), 부의장 : 양철용(梁哲容)
2007. 07. 01 제4대의회 개원
2002. 06. 13 제4대의원 선거(15명)

제3대 해운대구의회 1998~2002

2000. 07. 07 제3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2000. 7. 8~2002. 6. 30)
의장 : 박정희(朴正禧), 부의장 : 허 훈(許 燾)
1998. 07. 08 제3대 전반기 의장단 구성(1998. 7. 8~2000. 7. 7)
의장 : 정홍정(鄭弘政), 부의장 : 윤정춘(尹鼎春)
1998. 07. 01 제3대의회 개원
1998. 06. 04 제3대의원 선거(14명)

제2대 해운대구의회 1995~1998

1997. 04. 12 위원회 명칭 변경(총무 → 기획총무)
1996. 12. 31 제2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1997. 1. 10~1998. 6. 30)
의장 : 신중복(愼重福), 부의장 : 황준연(黃峻淵)
1995. 07. 10 제2대 전반기 의장단 구성(1995. 7. 10~1997. 1. 9)
의장 : 윤경현(尹慶鉉), 부의장 : 박정희(朴正禧)
1995. 07. 01 제2대의회 개원
1995. 04. 12 제2대의원 선거(20명)

초대 해운대구의회 1991~1995

1995. 05. 29 위원회 명칭 변경(총무사회 → 총무, 도시산업 → 사회도시)
1994. 03. 10 위원회 명칭 변경(총무사회산업 → 총무사회, 도시 → 도시산업)
1993. 04. 13 초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1993. 4. 15~1995. 6. 30)
의장 : 최해주(崔海柱), 부의장 : 신중복(愼重福)
1992. 03. 12 상임위원회 설치(총무사회산업, 도시, 의회운영)
1991. 04. 15 초대 전반기 의장단 구성(1991. 4. 15~1993. 4. 14)
의장 : 이태옥(李太玉), 부의장 : 최해주(崔海柱)
1991. 04. 15 초대의회 개원
1991. 03. 26 초대의원 선거(20명)

제9호

2015. 1. 1~2015. 12. 31

해 / 윤 / 대 / 의 / 정

의안 처리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선진의회



의안처리현황

○ 총 괄

구분	합계	조례안	예산안	승인안 동의안	건의·결의·추천안	규칙안	기타
계	108	64	3	8	1	4	28

○ 회기별 현황

회기별	회 기 (일수)	심의처리	
		조례	기타(조례외)
구 분	합 계	64	44
제209회 임시회	’ 15. 01. 20.(1일)	—	1
제210회 임시회	’ 15. 03. 02. ~ 03. 10.(9일)	9	5
제211회 임시회	’ 15. 04. 01. ~ 04. 10.(10일)	2	3
제212회 임시회	’ 15. 05. 12. ~ 05. 22.(11일)	2	3
제213회 정례회(제1차)	’ 15. 06. 22. ~ 07. 03.(12일)	7	6
제214회 임시회	’ 15. 09. 01. ~ 09. 10.(10일)	14	1
제215회 임시회	’ 15. 10. 14. ~ 10. 23.(11일)	16	6
제216회 정례회(제2차)	’ 15. 11. 20. ~ 12. 24.(35일)	14	19

○ 조례심의 결과

구분		발의·제출			심의결과				기타 (보류, 철회 등)
		계	의원	구청장	계	원안	수정	부결	
계		64	16	48	64	53	11	—	2
조례	제정	17	12	5	11	6	5	—	1
	개정	47	4	43	53	47	6	—	1
	폐지	—	—	—	—	—	—	—	—

제209회 임시회

(2015. 1. 20)

- 의원 발의
- 구청장제출

기타

- 해운대구의회 해양레저특화 민간공모사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210회 임시회

(2015. 3. 2~3. 10)

- 의원 발의
- 구청장제출

심의안건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수정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청사포 창작 공방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2015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2015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구청질문 / 5분자유발언

- 구정질문(최영곤 의원)
- 5분자유발언(한병철, 김삼수 의원)

기타

-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노후 원전 고리1호기 폐쇄 결의안



제211회 임시회

(2015. 4. 1~4. 10)

- 의원 발의
- 구청장제출

심의안건

- 좌동1배수지 상부 테니스장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서정학, 유점자, 오경미, 한병철 의원)

기타

- 해운대구의회 해양레저특화 민간공모사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014회계연도 결산 감사위원 선임의 건

제212회 임시회

(2015. 5. 12~5. 22)

- 의원 발의
- 구청장제출

심의안건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5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제1차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수정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서정학, 한병철, 김삼수, 임말숙 의원)

기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213회 정례회

(2015. 6. 22~7. 3)

- 의원 발의
- 구청장제출

심의안건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제개발협력 조례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취약계층 교육격차 해소사업 지원 조례안 ▶ 수정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해운대구와 필리핀 파라냐케시 간의 자매결연 동의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
- 해운대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구청질문 / 5분자유발언

- 구정질문(정성철, 이명원 의원)
- 5분자유발언(유점자, 심윤정, 김삼수, 조영진 의원)

기타

-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214회 임시회

(2015. 9. 1~9. 10)

- 의원 발의
- 구청장제출

심의안건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장자녀 등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안 ▶ 수정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 수정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정질문 / 5분자유발언

- 구정질문(황병두, 한병철 의원)
- 5분자유발언(서정학, 한병철, 서강식 의원)

기타

-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제215회 임시회

(2015. 10. 14~10. 23)

- 의원 발의
- 구청장제출

심의안건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회운영 · 기획관광행정 · 주민도시보건위원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 수정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애향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솔밭예술마을 창작공예공방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문화진흥 및 생활문화진흥 조례안

-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 연합협의회 규약 동의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복지마켓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사무 민간 위탁 변경동의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정질문 / 5분자유발언

- 구정질문(최영곤 의원)
- 5분자유발언(한병철, 유점자, 임말숙 의원)

기타

-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제216회 정례회

(2015. 11. 20~12. 24)

- 의원 발의
- 구청장제출

심의안건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회운영·기획관광행정·주민도시보건위원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사무직원 직무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반영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문화원 지원 조례안 ▶ 철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문화원 설립에 따른 구비출연동의안 ▶ 철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어린이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6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수정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 수정
- 2016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 2016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 2016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 2016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 2016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 2016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 부산광역시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지방의회 의견청취의 건 ▶ 보류
- 2016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 수정
-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수정
-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수정

구정질문 / 5분자유발언

- 구정질문(유점자, 한병철 의원)
- 5분자유발언(유점자, 최영곤 의원)

기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업무계획 보고, 업무실적 보고
-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
- 행정사무감사(의회운영·기획관광행정·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9호

2015. 1. 1~2015. 12. 31

해 / 운 / 대 / 의 / 정

의원 발의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선진의회

회기별	발의의원	의안명	소관 위원회
제210회 임시회	심윤정 임말숙 오경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기획관광행정
	심윤정 이명원 한병철 김삼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용역과제 사전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기획관광행정
	이명원 임말숙 황병두 김삼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 고용에 관한 조례안	기획관광행정



의원발의 의안(조례, 규칙) 현황

회기별	발의의원	의안명	소관 위원회
제213회 정례회	이명원 임말숙 황병두 김삼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제개발협력 조례안	기획관광행정
	심윤정 유점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민도시보건
	손유정 서정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취약계층 교육격차 해소사업 지원 조례안	주민도시보건
제214회 임시회	김삼수 이명원 오경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장자녀 등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관광행정
	김삼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안	기획관광행정
	김삼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역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주민도시보건
	임말숙 손유정 정성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도시보건
	최영곤 유점자 서강식 황병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주민도시보건
제215회 임시회	최영곤 유점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회운영
	최영곤 유점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포상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의회운영
	심윤정 손유정 한병철 최영곤 이명원 김삼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안	기획관광행정
	한병철 심윤정 임말숙 최영곤 김삼수 황병두 서정학 오경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	주민도시보건
제216회 정례회	임말숙 외 16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
	서정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사무직원 직무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회운영
	심윤정 손유정 한병철 정성철 김삼수 이명원 조영진 서정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주민도시보건

심윤정
의원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취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기본 조례를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취지 구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대한 용역 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함.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취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므로써, 주민들이 응급 상황에서의 응급처치 방법을 익히고 급성 심장정지와 같은 위급상황에서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취지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의 보수·정비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도록 하여 어린이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함.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취지 저출산 및 평균수명 증가로 인한 고령화로 노인복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복지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와 기준을 마련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손유정
의원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취약계층 교육격차해소사업 지원 조례안

취지 취약계층의 아동 및 청소년들의 교육격차와 교육여건 불평등을 해소하여 교육적 성취를 돕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며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문화·복지를 통한 사례관리와 연계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한병철
의원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

취지 구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구민우대 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구민일자리 창출에 이바지 하고자 함.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

취지 공동주택 내 분쟁 발생, 시설물의 안전관리 등 입주민 및 사용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주택법」제59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주택관리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최영곤
의원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취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교육 등 자립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위기 상황에 처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복교 및 교육지원, 취업 지원, 자립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취지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어 공공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규정을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포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취지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어 공공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규정을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임말숙
의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취지 공동주택의 노후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경비지원의 적용범위 완화와 개선 사업의 대상 확대 및 지원금 상향조정으로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취지 「지방자치법」제33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4조제8항에 따라 해운대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2016년도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비를 규정하고자 함.

김삼수
의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장자녀 등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취지 장학생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기 위하여 동장이 구청장에게 추천하는 학생의 학과성적을 제한하는 규정을 완화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안

취지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통해 해운대구를 사계절 관광명소로서의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젊은 문화활동 인구의 외부 유출을 막아 관광객과 주민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상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취지 흡연자의 금연 실천과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모든 구민을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고자 함.

이명원
의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국제개발협력 조례안

취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정책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국제개발 협력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서정학
의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취지 해운대구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 배지, 신분증 등의 문양이 한자로 표기 되어 있어 한글을 주로 사용하는 현실과 한글 존중 취지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직원 직무대리 규정 일부개정규칙안

취지 사무국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우선순위에 있는 담당 주사가 대리하도록 개정함.

제9호

2015. 1. 1~2015. 12. 31

해 / 윤 / 대 / 의 / 정

구정 질문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선진의회



구정질문 현황

회기별	질문자	내 용
제210회 임시회	최영곤	○ 해운대 힐스테이트 아파트 문제와 관련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관리·감독 역할과 책임의 이행여부에 대한 제질문
제213회 정례회	정성철	○ 앞으로 10년 해운대구 도시계획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 신청사 건립추진 경과와 향후계획 ○ 해양레저특화 민간공모사업 감사결과 보고와 재발방지 대책에 대하여
	이명원	○ 우2동 주거지전용 주차장 관련
제214회 임시회	황병두	○ 석대(반송)천 생태하천 정화사업 및 산책로 조성에 대하여 ○ 반송여중 통학로 인도개설 및 반송2동 지내 인도확장, 도로복구 ○ 다목적 문화복지복합센터 건립에 대하여 ○ 경찰특공대 유희부지 공원 조성에 대하여 ○ 반송동 인구 감소 대책에 대하여
	한병철	○ 동백섬 해양레저시설 문제와 구의 대응방안
제215회 임시회	최영곤	○ 해양레저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규명, 책임소재, 해결 방안모색을 위한 제질문
제216회 정례회	유점자	○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에 관한 구청장의 입장 청취 ○ 신청사부지 수영강변도로 확장공사 관련
	한병철	○ 부산 아쿠아리움 2021년 이후 계획 ○ 중1동 이마트옆 주차장 부지활용계획 ○ 해운대 빛축제만의 차별화 전략 ○ 해운대 문화원 부지 활용계획



해운대 힐스테이트 아파트 문제와 관련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관리·감독 역할과 책임의 이행여부에 대한 제질문

2015. 3. 10.

제210회 임시회

최영곤 의원

저는 3번에 걸친 구청장님과의 면담에서 절대 다수의 조합원이 바라는 완전준공을 결행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했지만, 다수에 반하는 부분준공을 결정하였고 그러나 구청장님의 기대나 예상과 달리 입주자는 1명도 없음.(현재 2~3%입주) 더구나 부분준공승인으로 재산권과 입주를 제한 받는 상태에서 취득세와 재산세를 물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임

구정이 다가오고, 3월이면 신입생입학철이 되어서 나름의 판단에 의해 이 시점에 결정하였으나 청장의 결정이 다소 미흡하고, 부족했더라도 이해바라며, 의원님께서 '다수의, 많은 조합원' 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행정청으로서 조합원을 대표하는 분하고 상대해서 행정을 펼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두 번째 면담에서 '재산권침해가 발생하면 부분준공을 하지 않겠다' 는 의미의 말씀을 하셨음. 그러나 추가사업비, 부가세, 금융이자 등 분담금 문제에서 시공사와 큰 이견이 있는 터에 구청장님의 부분준공 결정으로 이러한 쟁점의 주도권이 시공사로 넘어가버림. 결국 조합원의 재산권침해를 초래하는 원인을 제공해 주었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셨는지 묻고 싶음.

조속한 입주로 인해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행정지도도 하고, 중재역할에 최선을 다 하겠음.

두 개의 상이한 동별준공 인가신청서에 대한 질문임. 2015. 1. 15. 조합원 유희자님의 정보공개요청에 따라, 보름 후인 27일 구청담당자가 제공한 (변경전)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미분양된 상가조합과 축소된 지하층수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다음날 28일 오전 담당자에게 하자를 지적하며 정보공개요청 실랑이를 한 끝에, 이 두 가지가 보정된 (변경후)신청서를 출력해 주었음. 그런데 27일과 28일 제공된 준공신청서가 상이하다는 것은 정황상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움. 따라서 27일까지 보정전 상태로 두고 있다, 28일 조합원 방문 전 사이의 시간에 급히 보정하여 조합원에게 출력 제공한 것으로 추정됨.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타라든지, 수정·보완하는 숫자가 바뀌다보니 오해를 살 소지를 불러일으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듦.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허위공문서를 제공한 행위이고 조합원을 기만한 것임. 상가조합 준공신청의 규정과 법에 대해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법적인 분양되지 않은 상가의 준공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조합원께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이 불법적인 신청서가 그대로 접수가 될 수 있었다고 추정해 볼 때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일임.

동백초교 보행자통행계단 미시공으로 인한 동별준공인가 사유의 부당성에 대한 질문으로 이 사업은 구청 담당자도 인정한 바, 1개월이면 충분히 완공할 수 있는 공사임에도, 당초 당 아파트 사업시행계획에 포함 되지 않은 선택사업인 계단공사를 필수사업으로 전환하는 8차설계변경안을 구청이 수용하여 결과적으로 완전준공이 아닌 부분준공의 단초를 제공하였으며, 특히 조합원 동의 또는 조합의 이사회 및 대의원 동의

없이 조합장 직무대행 김00 임의로 8차설계변경에 추가시켜 조합원들의 많은 재산손실과 침해를 가중케 하는 결과를 초래함.

이러한 중대한 사안의 변경에 대해 그리고 중대한 사안변경의 결과에 대해 인지하고 예측하고 사전 관리·감독을 하여야 할 구청이 이를 무시 내지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결과라 생각함.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학생등하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교육청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며, 그리고 부분준공이든 전체준공이든 입주에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부분준공으로 조합원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기간을 앞당겨 주었음.

네 번째 질문으로 조합홈페이지 사업계획란 자료를 보면 부대복리시설인 유치원, 근린시설, 판매시설, 동사무소, 파출소의 합계면적은 18,801.95㎡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면적 497,488.8㎡를(1차 설계변경시 면적) 더하면 516,290.8㎡이므로 517,640.64㎡(도급계약서상 면적)과는 1,349.8㎡차이가 나며 이는 409평에 해당하며 최소 20억원 이상의 차액이 발생함.(현 시세가는 훨씬 상회)

그리고 지하층수도 8층(2009. 2. 24. 공사도급계약서)에서 7층((2009. 7. 20. 1차 사업변경인가)으로 1개층 축소하였으며 지상층도 2009. 3. 9. 1차 설계변경시 176.7m이지만 2010. 10. 5. 2차 설계변경에서 167.7m로 9m 축소 변경함. 이 또한 금액으로 환산하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이는 구청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문제라고 생각함.

이 사업은 공공사업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민간이 하는 사업임을 이해바라며, 면적의 증감에 따른 사업비의 증감부분은 조합 측과 시공사 간의 문제이지, 금전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중재하고 개입할 그런 사항이 아님.

재산상 손실이 예상되면 지도·감독을 해야 할 구청이 수치가 정확한지, 변경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검토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금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할 것이 아니라고 봄. 증축이 되던, 감소가 되던 법에 맞으면 저희들은 처분해야 될 의무가 있음. 적정공사비 이상으로 부풀렸다면 쟁송을 통해 언제든지 밝혀지고 찾을 수 있습니다. 준공과 그것은 별개의 사항임.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해명이 있었지만 풀리지 않는 많은 의문들이 있으며, 잘못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며, 다시는 이런 무책임과 불신의 행정이 근절되어야 하며 그래서 해운대구청이 책임진 건축행정은 100%신뢰 할 수 있다는 믿음·신뢰행정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함.



앞으로 10년 해운대구 도시계획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2015. 7. 3.

제213회 정례회

정 성 철 의원

앞으로 10년 해운대구 도시계획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2030비전과 전략에서 제시한 장기발전 구상, 부문별 계획, 10대 핵심 주요 전략사업 중 성과는 무엇이며, 향후 추진 계획은 무엇인지? 2030비전과 전략 용역 후 장기 플랜 외 구체적 도시계획은? 장·단기 도시계획 수립계획은 있는지. 공터로 방치되어 주민 보건위생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좌동 1428번지 공영버스차고지 부지 1필지, 체육 시설 테니스장으로 개발하여 관변 단체의 수익사업 운영 중으로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어 청소년 정서 함양에 역행하고 있는 좌동 1340-1번지, 청소년수련시설 1필지, 지하 공영주차장으로 개발하여야 하나 편법으로 노외주차장으로 운영 중인 좌동 1461-2번지 외 3필지, 이 3곳의 필지에 대하여 해운대구민이 원하는 시설을 부산시에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또 설치가 가능한지, 구청의 계획은 무엇인지.

2030비전과 전략은 2009년도에 부산발전연구원에 의뢰한 발전전략계획으로 국토종합계획 등 각종 상위 계획과 연계하여 해운대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정립을 위한 계획이었으며 각종 계획수립 시 지침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구의 정책 구현에 토대가 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하고 있음.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전략사업들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검토하여 행거나갈 것임. 신시가지는 주변 여건 변화, 교통량, 보행환경 등 변화 요인을 검토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환경 변화에 맞는 새로운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봄.

신청사 건립추진 경과와 향후계획

세계일류 도시 해운대를 거쳐 행복도시 해운대의 시대가 도래했음. 행복도시 해운대의 목표는 무엇인지. 구에는 구민운동장, 다목적 체육관, 학교 등이 위치하고 있음에도 우리 아이들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 하나 없는 실정이다. 신청사 총면적 18,497㎡ 중 문화복합센터 부지를 제외한 14,532㎡의 부지를 해운대구민에게 돌려줄 의향은 없으신지. 신청사 건립 추진경과와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청사별관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2013년 현재의 문화복합센터를 완공하고, 잔여지는 잔디광장을 조성하였으나 완전히 활착되지 않은 상태라 잔디보호를 위하여 외부인에게 행사장으로 완전 개방하는 데 일부 제약이 있음. 향후 금년 말까지 정부의 보류 지침이 해제되면 모든 절차를 재이행하여야 하므로 그때 다시 주민 의견 수렴 등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신청사 건립을 추진토록 할 예정임.

해양레저특화 민간공모사업 감사결과 보고와 재발방지

해양레저특화 민간공모사업은 직영사업에서 민간공모사업으로 전환한 이유가 모호하고, 근거자료, 회의록 등 정책변경에 따른 자료 미제출과 증인 출석, 전문가 출석 등의 한계로 인하여 집행부의 감사부서로 하여금 전반적 감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감사 결과는 향후 보완사항만 적시할 뿐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은 없다. 재발방지대책은 무엇인지.

앞으로 민간투자 방식의 사업은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시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행여 민간투자 사업이 실시되더라도 사전협상 과정에서 충분한 사업추진 능력 분석과 이에 대한 이행담보 강화 등이 우선되도록 하겠음.

송정동 죽도공원 해안에 위치한 해양레저거점 사업장에는 해양레저는 없고 미역판매장으로 전락했다. 송정동 해양레저거점에 대한 구청의 매입의향은?

사업장에 대한 구청의 매입 건은 사업자가 포기를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음. 사업자가 스스로 지나친 매각 대금 요구의 불가 상황을 인지하고, 그리고 구의 설득으로 사업의 자진포기를 유도한다면 구에서 매입하는 방안도 좋은 방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함.



우2동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련

2015. 7. 3.

제213회 정례회

이명원 의원

우2동 주거지 전용 주차장 관련해서 2014년 10월 부산시에서 암행실사를 해서 연간 약 1억 1,000만원 정도의 주차수익금 차익이 발생한다고 추정하였고 해당 위치가 주거지 전용 주차장으로 부적합하니 전환을 검토하라고 했음. 우리 구에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간제 주차수입이 하루 15만 원, 연 5,400만 원 정도로 차익이 발생하고 주차관리인이 신고 없이 3대에서 6대 정도 월주차를 임의로 허용해서 착복한 사실을 발견했고 주거지 전용 주차장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였음.

2001년도부터 15년동안 관리하였기 때문에 부산시 추정 약 15억 원, 우리 구 추정 약 7억 5,000만원 정도의 세수가 증거 없이 없어졌다고 추정할 수 있음.

공금횡령으로 추정되는 세수손실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지 않으면서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만 관리부실 책임을 묻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움. 주거지 전용 주차장의 관리부실 문제는 예전부터 지적되어 왔는데, 사법 당국에 수사를 의뢰하지 않으실 의향이라면 공무원에 대한 징계도 철회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해당 지역 주민자치위원회에 주차장 관리권을 돌려주고 그것도 모자라 수익계약 방식이 된다면 공금을 횡령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는 전형적인 하위직 공무원 꼬리자르기라는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임.

해당 단체에 주거지 전용주차장 관리권을 주는 것이 묘책이라고 생각함. 그러나 관리부실에 대해서는 상하를 막론하고 추상같은 책임을 물어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부패가 보이는 부분을 덮어두고 이 단체에 관리권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기를 재삼 요청함.

주민들의 주장 중 한 가지는 2001년 신시가지 우회도로가 개설될 때 철길이 개설되는 것을 반대하여 얻은 지역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끝까지 고수해야 되겠다는 것으로 그 요구에 대해서 일부 사회 지도층, 지역 여론층에서 동조를 해 주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더 탄력을 받아서 구에서 더 힘들어지는 과정을 겪었던 것임. 그래서 그 분들에게 보상 차원에서, 지금까지 수익금이 어쨌든 지역을 위해서 쓰였으니까 갑자기 단절하는 것보다 1년 정도 완충기간을 주기 위해서 수익계약으로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찾아서 주는 것으로 결정하도록 추진하려고 함.

관내에 46개소의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 있는데, 전부 다 노선 일자형으로 되어 있으며 이 지역을 공영 주차장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이유는 교각 하부는 일자로 안 되어 있고, 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며 그리고 관리권을 준다고 하는 전제가 저희들이 평가해서 수익계약을 할 때 반드시 예가가 나오기 때문에 공개경쟁 입찰할 때 예가를 받는 조건으로 처리할 것임.

지역 주민들의 노력에 대한 보상차원의 요구가 타당성이 없지는 않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묘책이라고 봄. 그러나 타 동과의 형평성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람.



석대(반송)천 생태하천 정화사업 및 산책로 조성에 대하여

2015. 9. 10.

제214회 임시회

황 병 두 의원

반송 주민들의 대표적인 친수 공간인 석대(반송)천은 상·하류구간은 정비가 완료되었으나 5만여 주민들이 이용하는 중류 반송 구간만 하천정비에서 제외 되어있어 석대(반송)천 산책로 조성과 생태하천 정화사업이 긴요하다고 판단된다. 70년대 새마을 사업으로 조성된 하천의 웅벽(석축) 재정비 계획과 대책은? 반송천 수질개선과 건천방지를 위한 대책은? 유지용수 방류와 방류 낙하지점의 주변에 친자연형 친수 공간 조형물 설치계획과 대책은? 생활오수가 하천으로 유입돼 심한 악취와 하천 중앙의 콘크리트 관로 하천오염과 홍물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주민들의 여유롭고 건강한 삶을 위한 친환경적인 생태하천과 산책로 조성 계획과 대책은?

석대(반송)천은 하천정비기본계획상 하천확폭이 필요한 구간으로 부산시와 관련부서에 요청하고 동부하수 처리장의 고도 처리된 유지용수를 고촌역 지점에 유지용수 방류 예정이며 동부하수 처리장으로 가는 하수 관거는 부산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 3단계 시행구간으로 2018년 이후에 시행계획 예정이고, 반송교회

~반송2호교 구간의 산책로는 부산시에 협의 요청 중에 있다.

반송여중 통학로 인도개설 및 반송2동 지내 인도확장, 도로복구

동부산대 정문에서 반송여중 후문까지 안전한 등하교길 보행로 인도 개설에 대한 계획과 대책은? 반송여중과 동부산대 주변의 공영주차장 계획과 대책은? 적조암 앞 인도 확장계획과 대책은? 반송2동 지내 도로복구와 인도 보도블록 교체 계획과 대책은?

등곳길 주민의견 수렴 주변여건 개선 후 2016년 구비신청 사업추진 예정이다. 소규모 공동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 검토 인도확장 도로복구 보도블록 교체 등은 2016년 예산 반영시 반송동 도로정비 사업으로 정비할 것임.

경찰특공대 유희부지 공원 조성에 대하여

경찰특공대 유희부지 공원조성에 현재까지 업무추진 경과와 실적 예산확보 방안과 향후 공원부지 조성 계획과 대책은?

자연친화적 공원을 제공하기 위해 부산시 경찰청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고 국비, 지방비 등을 확보하여 공원지정 절차 이행을 계획함.

다목적 문화복지복합센터 건립에 대하여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토대로 지역 균형발전과 문화와 복지 노령인구 증가 등의 대비책으로 다목적 문화복지 복합센터 건립을 제안 하였으나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답변하였으나 향후 지속적으로 요구함.

반송동 인구 감소 대책에 대하여

인구 감소의 근본적인 이유는? 주거환경 개선의 계획과 대책은? 장기발전 계획과 도시계획 용역 계획은? 반송 재정비 촉진사업 시행과 계획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환경개선과 균형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동백섬 해양레저시설 문제와 구의 대응방안

2015. 9. 10.

제214회 임시회

한 병 철 의원

동백섬 해양레저시설의 해양레저시설업의 활용빈도와 이용객 수가 얼마나 되는지, 또 외식업으로 운영 되는 부분과 매출비율의 차이는 얼마인지 궁금하다.

1월부터 8월까지 월 평균 5,000명 정도가 이용, 특히 8월의 경우에는 하루에 400명, 8월 한 달 동안은 1만 2,000명 정도가 이용한 데이터가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해양레저시설을 이용했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인 평가를 외부로부터 받고 있다.

외식업 운영에 대해서 매출비율은 업체의 영업상 비밀이기 때문에 판매액수까지 파악을 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공유수면 위에 판매부스가 있고, 겨울에는 방갈로를 설치해 옆에 테이블을 설치하고 있다. 사실상 영업행위로 보인다. 앞으로는 영업에 대한 단속조치가 이루어질 것인가.

밤에 야경이 좋으니까 본인들이 공유수면에 있는 데크에 가서 그곳에서 먹는 것을 영업으로 볼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영업으로 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불법이 있으면 당연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다.

동백섬 해양레저시설로부터 빛 공해, 소음 및 교통난으로 고통을 받는 주민들의 민원 해소 차원에서 지역 사회 기여 방안은 협의가 가능한지.

매년 불우이웃 돕기 성금도 납부를 하고 있고, 올해 장애인의 날 행사에 몇 천만원을 기부했으며, 10월에는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들을 대상으로 무료 해양안전체험교실 등 소외계층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으로 사회 환원에 열심히 동참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다.

동백섬 해양레저시설 진입 구간의 교통정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뒤에 있는 국방부 소유의 무료주차장을 유료화해서 차가 순환이 되면 1차선에 줄지어 서 있던 대기 차량이 상당히 완화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렇게 했음에도 차량들이 줄을 서 있다고 한다면 더베이 측에 부과를 해서라도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하겠다.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에 ‘공유수면 점용 사용허가를 받은 지역은 특화사업 목적, 해양레저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해운대구는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해양레저 특구이다. 특정 업자의 영업을 위한 해양레저특구가 아니라 해운대구 주민과 해운대구를 찾아주는 관광객을 위한 해양레저특구가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해양레저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규명, 책임소재, 해결방안모색을 위한 제질문

2015. 10. 23.

제215회 임시회

최영곤 의원

사업자의 사업면적 변경신청에 대한 집행부의 변경인가에 관한 질문이다. 구덕포와 동백섬 같은 경우는 약 150% 정도의 사업면적 증가를 허가해 주었다. 사업 면적변경 신청허가는 상당히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고, 꼭 필요한 경우와 그 이유가 분명할 때 허락해야 된다.

구덕포는 현재 해양레저와 관련된 시설은 그냥 다리 하나만 놓아 둔 것 외에는 상업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또 동백섬 같은 경우도 지하 수련시설과 교육 세미나실을 상업시설인 전시장으로 용도를 변경하였다.

특화산업 레저시설 변경은 사업계획을 변경수립을 해서 지식경제부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 계획서 내용대로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민간이 제안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 관련 법률에 저촉이 되지 않는 한, 첫째로 제안서를 최대한 존중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사업변경 신청에 대해서 누가 최종 허가하는가?

구정의 중요한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수립 단계는 우리 구 같은 경우 청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추진한다.

당시 청장이 이런 결정을 하였나? 물론 필요해서 하셨겠지만 결과적으로 상당히 신중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입장표명, 사과, 책임의 문제가 남아 있다.

올 초 해양레저 특위에서 구덕포와 송정 죽도는 '암반 지대라서 계류장은 물론 해양레저가 불가한 지역이다, 암반을 다 깨야 하기에 배의 접안도 불가하다' 이렇게 말하셨다. 또 지난 9.10일 임시회 구정질문의 답변에서도 거듭 이 두 곳이 부적합한 입지라고 하였다. 과연 해양레저사업이 가능한가?

당초 구덕포에 설립된 장소의 배경은 2006년도에 부산발전연구원에서 해양레저 입지 용역결과로 선정된 곳으로 암반 형태에 해양레저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면 각종 레저기구가 입·출입할 때 암반과 충돌하지 않을 수 있는 시설을 완벽하게 반영하면 가능하여서 90m정도의 부교설치로 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구덕포는 파고가 평균 3m라고 하였다. 그런 상황에서 동력 또는 풍력에 의한 장비 이용자가 배를 타고 나갔다가 바람이 상시적으로 부는데, 암반을 철거하지 않고 방파제를 설치하지 않고는 어떤 사고를 당할지 모르는 위험하고 불가능한 지역이다. 여기 있는 암반을 제거해야 하고, 그 다음에 방파제 시설이 절대 필요하다.

해양레저라는 것이 윈드서핑, 카약, 요트 이런 것처럼 무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바위 암반이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동력은 방향조절이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90m 데크를 친 것이다. 그래서 어떤 해양레저 기구인지 관계없이 무조건 부적합하다고 단정 짓는 것은 맞지 않다.

적합지인지 부적합지인지 판단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성의 확률을 보고 해야 한다. 안전성이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해서 그 확률에 따라서 판단해야하는데 10~20%가 가능하다고 해서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참고로 업자의 파렴치함을 말씀을 드리겠다. 지금 업자가 1층 커피숍과 4층 숙박시설 사기분양으로 고발된 사실을 알고 있나?

보다시피 이 사업은 문제가 많은 사업이고, 실패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내용의 반영 소홀 및 무시, 사전 협약서 미체결, 신뢰하기 어려운 정온도와 수치수리모형 실험, 무분별한 사업 면적 증축 변경인가로 인한 공기 및 개장 지연 등등이 있다.

따라서 부실투성인 문제의 사업을 주도한 총괄사업자(구청)와 단위사업자에게 더 이상 이 사업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보상 및 책임 문제 등 법적, 금전적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겠지만 사업장의 원상 복귀를 포함한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늦었지만 본격적으로 해야 할 시점이다.

이를 위한 구의회 주민대표 전문가로 구성된 ‘해양레저특화사업 재검토 포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

또한 이 사업의 현 결과에 대한 책임문제도 반드시 따져야 한다.

이 사업의 총 책임자는 최종 결재권자인 전임구청장(배덕광)이다. 사과와 해명, 나아가서는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도 져야 한다.

구정질문은 종료가 아니라 시작입니다. 본 의원은 더 나아가 궁극적인 해결방안들까지 생각하고 있다. 모쪼록 전임 구청장의 사업을 이어받았지만 현 구청장께서는 상황을 직시하시고 본 의원의 이러한 제안을 신중히 고려하여 추후 업적과 명예를 지키시길 바란다.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에 관한 구청장의 입장 청취

2015. 12. 11.

제216회 정례회

유 점 자 의원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공유수면 점용에 따른 점용료는 30년간 약 2,100억원에 달하며, 민간 사업자인 아이파크마리나(주)가 부담해야할 점용료를 전액 감면해 준다는데 사실인지?

2013. 12월 부산시에서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요청이 있었고, 우리구는 2014. 2월 공유수면 점·사용료 조건부 감면을 결정하였으며, 이후 2014. 7월 조건부 감면을 수정하여 우리구 관내 교통 해소를 위한 도로개설 5개 사업을 부산시에 제안하였음.

2014. 3. 19. 부산시와 사업시행자 간에 체결한 실시협약서 제48조에 의하면 부산시는 공유수면 점·사용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에 대한 사업기간 중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전액 감면하도록 처리한다.라고 협약되어 있음.

사업자에게 공유수면 점용료를 감면을 해 줘야 한다면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람

공유수면법 제13조 제1항 5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규정에 따라 점·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점·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의무규정인지 재량규정인지에 대해 법제처의 법령해석 요청 결과“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사용료를 감면해야 한다.”라고 법령해석 통보(2015. 8. 10.)되었음.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 사업자에게 점용료를 감면해 주고 우리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또한, 본 사업과 관련하여 해운대구의 입장등 의견을 시에 제안한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시에 제출한 의견 5가지 모두 관철 될 수 있는 것인지?

공유수면 점·사용료에 대해 논란이 많았으나, 우리구는 2여년 동안 심도있게 논의하여 2014. 7월 최종적으로 보전사업(5개)을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부산시에 요청 하였으며, 올림픽교차로 주변 도로확장, 중동과선교 철거 및 하부도로 정비 사업은 진행중이고, 3개 사업은 부산시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본 사업의 최종 허가권은 부산광역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해운대구에서 사업 시행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를 부과할 계획인지 구청장의 입장은?

수영만 요트경기장 관련한 공유수면 점·사용료 문제는 부산시와 우리구 간에 사전 협의를 거쳐 2여년 동안 충분히 논의하여 조건부 감면을 요청하였으며, 주무관청인 부산시가 정책적 결정을 하여 사업 시행자 간에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전액 감면하는 것으로 실시계획협약서가 체결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에 와서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 원칙에 위배되고,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거론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신청사부지 수영강변도로 확장공사 관련

2015. 12. 24.

제216회 정례회

유 점 자 의원

올해 5월 해운대구 별관 청사 부지인 1191번지 일부를 도로로 개설한 것으로 아는데, 강변도로가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인가요? 또한, 이 사업과 관련하여 의회에 설명을 한 적은 있는지?

부산시에서는 폭 25m를 초과하는 계획도로를 신설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이후 신설도로에 대한 유지 관리는 우리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폭 30~35m의 6차선 도로인 수영강변도로는 센텀 시티 조성당시 부산시에서 설치하였으며, 현재 우리구 에서는 도로에 대한 유지관리(가로등, 중앙분리대 등 도로시설물 설치관리 등)업무를 맡고 있으며, 구의 사업을 의회에 설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도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회에 설명을 한 적이 있음.

먼저, 2015년 본예산 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의회에 제출하는 주요경상사업 설명서 상 “신청사 부지관리”란 제목으로 가속차로 확보를 위한 도로 및 보도정비에 대해 설명을 하였고 두 번째는 2014. 12. 9 기획 관광행정위원회 예산안 심사시에도 한병철 의원님께서 센텀중앙로 보도확보 1억5천만원에 대해 설명을 요구함에 따라, 행정지원과장이 “센텀파크에서 수영강변도로로 올리기 위해서는 우회전을 해야 하는데, 가변차선이 없어 교통사고가 많이 남에 따라, 주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구청사 잔디광장 4m정도를 넓기 위해 예산을 반영했다”고 답변 하신 걸로 알고 있음.

수영강변대로는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시비를 들어 공사를 해야 하는데, 구비를 들인 이유는?

부산시에서 시비를 투입하는 경우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사 일부를 보도로 확보하는데, 시비를 투입하기 위해서는 지목이 대지인 신청사부지 일부를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변경결정하여야 하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도로로 지정된 부분만큼 신청사 부지가 축소되어 향후 신청사 건립 시 용적률과 건폐율 등에 지장을 받게 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변경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부분은 신청사 건립 시 어차피 구비를 투입하여 도로로 개설할 것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제기된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체증 해소 등을 위하여 공사하게 되었으며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번 공사에 사유지(하수처리장 부지)도 33평이 들어가 있음.



부산 아쿠아리움 2021년 이후 계획

2015. 12. 24.

제216회 정례회

한 병 철 의원

해운대 아쿠아리움의 도입 배경과 협약서 원본 공개, 아쿠아리움의 초기 투자 금액과 현재 직원 현황은?

첫 번째, 해운대 아쿠아리움의 도입 배경은 해운대의 사계절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테마 관광 콘텐츠 구축을 위한 민자 유치 사업으로 시작했으며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목적으로 제정된 민간자본 유치촉진법의 규정에 따라서 추진을 했음. 그리고 협약서는 별도로 제출하였으며 아쿠아리움의 초기 투자 금액은 그 당시에 350억원이었고, 현재 아쿠아리움의 직원 수는 100여 명 정도로 알고 있음.

아쿠아리움을 2021년 이후에는 기부체납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운대구의 향후 전략은?

2020년 이후의 저희 계획과 향후 전략으로는 아쿠아리움이 해운대구로 기부체납 되는 2021년 이후 계획에 앞서 협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는 기부체납 및 시설물의 이양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협약서 제18조에는 2021년 11월 6일 종료와 동시에 우리 구로 기부체납이 되며, 기부체납 조건은 정상 가동 상태로 이양되고, 또한 이양 시설의 범위는 어류와 설비, 사무기기 등 일체가 되겠으며 또한 협약서 22조에는 아쿠아리움에서 사용·수익 기간 만료 1년 전 사용·수익 기간의 10년 연장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연장계약 체결이 가능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게 돼 있으며 현재는 민간기관의 기간이 6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별도의 계획은 없으나 만료일 도래 2~3년 전에 연장 또는 직영과 타 전문 업체의 위탁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할 계획임.

해운대 문화원 부지 활용계획

해운대 문화원 부지의 현재 현황에 대해서?

해당 부지는 1,340㎡로 좌동 1458번지4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9년 12월 30일 부산시와 8억원에 5년 연부계약을 맺어 2014년 작년 2월 2일자로 해운대구로 소유권 취득을 하게 되었으며 현재는 공영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주차면수는 49면에 연간 1억원 정도에 위탁 운영하고 문화원 부지는 5년 연부로 완료하고, 2014년 2월에 부산시에서 해운대구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 문화원 설립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문화원을 문화복합센터 내에 설치하게 된 사유는 좌동 문화원 부지 인근에는 해운대 문화회관이 이미 설치되어 있고, 또한 아시아문화원 건립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역 간의 문화 불균형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므로 해운대지역 중간에 소재하는 문화복합센터 내에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점과 또한 타 구의 문화원의 예를 보면 대부분 초기에는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운영하다가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힌 후에 장기적인 계획으로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람.

중1동 이마트옆 주차장 부지활용계획

중1동 이마트 옆 주차장 부지의 활용 계획에 대해서 질문. 중동 1768-1번지, 그리고 1768-2번지는 이마트 소유로 되어 있고, 3번지는 지금 부산광역시 소유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될지?

1996년도에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주차장 부지로 돼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희 구에서 주차장 부지에 동사무소를 하겠다고 매입하려고 해도 5년 동안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5년 이내는 아마 동사무소를 하고자 해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중1동 이마트 개장 이후부터 현재까지 해당 부지를 공영주차장으로 수의계약해서 사용하게 된 배경과 법적 근거, 수의계약 수익금은 어디로 귀속되는지와 그 사유는? 제가 사전 질의를 드리니까 수의계약의 근거가 ‘해당 부지가 이마트 부지와 나란히 하여 용도 형태상 진·출입구가 하나로 되어 있어서 부지 활용도 등 목적성을 고려해서 2000년부터 수의계약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출입구는 사실 이쪽으로도 올 수 있고, 이쪽으로도 출입 가능한 형태로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지를 이마트만 사용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이며, 2000년부터 이루어진 일이니까 물론 청장님이 계실 때와는 관련이 없겠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계약 방식이라고 사료되며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수의계약 수익금은 1억 3,000만원으로 돼 있음. 그래서 1억 3,000만원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냐 하면 이 해당 부지의 2015년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110만원으로 공시지가를 평당 330만원 정도로 추정했는데, 현재 해당 부지의 가격은 구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중동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평당 단가가 실거래가로 따진다면 2,000만원 이상을 상회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감정가로 나와 있는 공시지가 330만원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임. 그리고 지금 임대 면적이 한 700평 정도가 돼서 대부로 요율을 5%로 해서 부가가치세 10%를 더하면 1억 3,000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그 1억 3,000만원의 50%인 6,500만원 가량을 가져가고, 또 해운대구에서 6,500만원을 가지고 오고 있는 형태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해당 부지를 주차장으로 계속해서 사용한다고 했을 때 감정을 하지 않은 공시지가만으로 판단한 가격이 약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현재 중1동 주민센터가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중1동 주민센터를 해당 부지로 옮겨서 중1동주민센터의 1층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2, 3, 4, 5층은 주민센터로 활용하는 등 지금 현재 있는 중1동주민센터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구청의 주차장 문제라든지, 해운대시장의 주차장 문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중1동 주민센터를 저 부지로 옮겨볼까 검토를 해 봤었는데, 여러 가지 조건상 부적합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내렸고 그래서 저곳 말고, 지금 두 곳의 부지를 보고 있는데, 보는 사람마다 동사무소의 활용에 대해서 견해가 제각각 다른 상황이며 저 동사무소를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는 있음.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중1동 동사무소를 현재 저 위치에서 매각하면 상당한 세입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지금 물색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다음에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음.

해당 부지의 수의계약 문제라든지, 감정이 산출의 문제,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시고, 판단하셔서 나중에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운대 빛축제만의 차별화 전략

해운대 빛축제의 추진 배경과 관광객 증가 현황에 대해서?

작년에는 구청 예산을 1억원 정도 확보했었는데, 올해는 민간 협찬을 받아서 작년보다 3배 정도 규모를 키워서 해운대 라코 빛축제를 개최하였고 특히 아이스링크장을 개장해서 평일에는 3만명, 주말에는 5만명 정도의 관광객이 증가했음

현재 베끼기 논란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광복로는 크리스마스 트리축제고, 저희 해운대의 축제는... 현재 해운대의 상권이 중구 등의 원도심 상권 못지않게 침체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상권을 어떻게 살려볼까 하는 상인들의 고민 끝에 만들어낸 것이 라코 빛축제가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계기로 해서 베꼈다는 논란보다도 관광객을 부산으로 모아서 동반성장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함.

지난 2014년 7월에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파사드를 가미한 3D 빛축제를 제안했었는데 물론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에서 당장 추진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다른 자치구가 선점하기 이전에 우리 구가 세계적인 관광도시인 만큼 해당 기술을 조금 차용해서 빨리 도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구의원님께서도 함께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지역의 국회의원과 함께... 국비가 제대로 지원되지 않는 이상 상당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 그래서 우리 집행부와 의원님, 또 관계 지역구의 국회의원과 함께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모색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

제9호

2015. 1. 1~2015. 12. 31

해 / 운 / 대 / 의 / 정

5분 자유발언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선진의회



5분 자유발언

회기별	발언자	발언자
제210회 임시회	한병철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구청의 역할 (난자의 냉동 보관비용 지원)
	김삼수	신청사 이전 구청장의 명확한 의지가 궁금합니다.
제211회 임시회	서정학	‘장산 2터널’ 건설 하루 빨리 서둘러야.....
	유점자	보도블록 공사를 위한 몇가지 제안
	오경미	우2동 GS자이 아파트 진입로에 관하여
	한병철	해운대 센텀 여름축제와 해운대 해수욕장 흡연부스 제안
	유점자	보육 공공성 강화하여 행복도시 해운대를 만들자
제212회 임시회	서정학	‘석대삼거리 주변 도로’ 제대로 관리해야.....
	한병철	우2동 주거지전용 주차장 관련 제언
	김삼수	행복도시 해운대를 위해
	임말숙	송정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 제안
제213회 정례회	유점자	하절기에도 주민과 함께
	심윤정	용역을 위한 용역 이대로는 안된다
	김삼수	쿨비즈 부산에서는 해운대가 앞장서자
	조영진	반여동 도시첨단산업단지(드림시티) 조성에 덧붙여
제214회 임시회	서정학	‘해운대수목원~운봉마을’ 간 임도 조성 제안
	한병철	해운대 바가지 요금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
	서강식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관련하여
제215회 임시회	한병철	엄마를 위한 도시 해운대-엄마상자 제안
	유점자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하여
	임말숙	대천공원 확대조성과 체육공원 시설 확충 필요성에 대한 제언
제216회 정례회	유점자	해수담수화 실용화에 관한 의견
	최영곤	해양레저사업 인가 선결조건 및 제언

출산율을 높일수 있는 구청의 역할

한병철 의원

제210회 임시회 / 2015. 3. 2.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는 43만 5,300명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9년간 저출산 대책에 정부예산 66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높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구에서도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구 출산지원금, 둘째 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등 57건의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동영상 상영)

보셨다시피 지금 서울 송파구에서는 공공 산후 조리원 건립을 위해 20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공공 산후 조리원을 만들었고, 일본 지바현 우라야스시에서 2월 6일부터 8억 4,000만원 정도를 투자하고 자기보조금 30%로 해서 난자를 냉동보존 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우리 해운대구에서도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서울 송파구를 벤치마킹하는 노원구 의회의 의원님들의 모습이나 아니면 일본 지바현 우라야스시의 획기적인 출산정책 지원을 벤치마킹해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선도하는 해운대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청사 이전 구청장의 명확한 의지가 궁금합니다.

김삼수 의원

제210회 임시회 / 2015. 3. 10.



2015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현청사의 주차난을 해소코자 주차타워 건축을 위한 예산을 삭감한 일이 있었습니다. 재송동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저로서는 당연히 반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 청사에 15억원을 들여 주차장과 족욕장 공사를 한다는 것은 신청사 이전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주민들은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청사이전을 공약으로 내건 구청장은 현 청사에 주차장 건물을 지어도 철골 구조물 이므로 향후 이전 시 해체 후 고철로 되팔아도 30%는 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30%의 근거가 11억원의 공사비 중에서 30%인지 아니면 순수 고철 자재비 중 30%를 말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예산심의 전 10월에 신청사이전적립금을 재예치할 시 본 의원을 비롯한 기획위 위원들이 차라리 이 금액으로 현 청사 주변 땅을 매입하여 주차장을 짓자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해당 부서장은 '언제든지 이전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하므로 은행에 적립을 해 두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달 예산심의 시 '신청사 이전이 언제 될지 모르니 현재 쓰고 있는 건물을 잘 쓰기 위해서라도 주차장 타워를 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어느 말이 진심인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2002년도에 적립해 둔 60여 억원 이후 단 한 차례도 추가 적립을 하지 않았고, 현재는 은행 이자 만으로 약 70여 억원이 넘는 금액이 적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적립금액과 시비보조금, 현 청사 매각대금을 합하면 충분하다는 취지의 답변도 받았습시다만 신청사를 건립할 시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며, 현 청사를 매각할 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 청사가 2011년도에 안전진단을 통해 B등급을 받아 당분간은 이전이 급하게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그로부터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작년의 세월호 사고, 벌써 잊으셨습니까? 4년 전에 안전했다고 지금도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현재 신청사 이전 부지에 흙먼지로 인한 민원이 잦다고 하여 작년 전반기 1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잔디를 심었습니다. 허나 공사를 급하게 한 것인지, 감독을 잘못된 것인지, 올해 또다시 잔디를 걷어내고 새로 심는다고 합니다. 예산이 이렇게 낭비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현 청사와 문화복합센터를 두 차례 정도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낭비되는 행정 효율과 시간낭비, 그리고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되고 있는 문화복합센터의 관리위탁비용,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신청사 이전을 하는 것이 차라리 장기적으로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신청사 이전 시 현 청사 주변 상권 문제로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는 의견도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현 청사 매각 시 업체 선정에 있어 유동인구가 최대한 많은 업체를 선정한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신청사이전을 통해서 해운대의 동서 균형 발전을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장산2터널’ 건설 하루 빨리 서둘러야...

서정학 의원

제211회 임시회 / 2015. 4. 1.



저는 오늘 날로 심각해져 가는 해운대의 교통난 해소와 동부산관광단지 개발과 맞물려 머지않아 닥칠 교통대란을 막기 위해 장산로(신시가지우회도로)에서 수영 3호교로 이어지는 ‘장산 제2터널’을 하루빨리 건설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해운대에는 101층 규모인 해운대관광 리조트 ‘엘시티’와 신세계백화점 2단계 복합쇼핑몰이 공사중에 있고, 인접한 기장군에도 동부산관광단지가 조성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시설들이 모두 완공되면 하루 평균 10만대 이상의 차량이 해운대 도심을 거쳐 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최근 동부산관광단지에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이 문을 연 이후, 장산로(신시가지 우회도로) 일대의 교통 체증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어 가까운 미래에 해운대에

닥칠 교통대란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부산시는 지난 2011년 동부산권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민간투자 방식의 ‘장산 제2터널’ 건설을 추진 하였지만,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가 적격성 검토를 한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같은 해 부산시가 ‘제2 장산로(장산 제2터널)’를 혼잡도로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이 또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최근 십수년간 해운대와 인근 기장군의 개발속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빨라지고 있는데, 해운대 지역의 교통 인프라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때늦은 대책이 되지 않을까 우려 됩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소를 잃고 난 후 외양간을 고치기에는 너무 큰 불편과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해운대 도심을 통과하는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동부산권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대책이 ‘장산 제2터널’이라는 사실은 많은 교통전문가들이 인정하여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미 올림픽교차로 일원은 1일 교통량이 10만대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으로 ‘장산 제2 터널’ 건설을 통한 우회로 확보는 하루가 급하다 하겠습니다.

이제 해운대구는 부산시의 사업추진 의지와 정부의 결정에만 기대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제2 장산터널’ 재추진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문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해운대 지역의 교통난 문제는 집행부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도블록 공사를 위한 몇가지 제안

유점자 의원

제211회 임시회 / 2015. 4. 1.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계절을 맞아 우리 해운대의 보도블록도 아름답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해운대는 우동 해운대로를 중심으로 동해안 국가 자전거길 조성을 위한 보도 정비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진행중인 공사 현장을 둘러 보고 느낀 점을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보도블록은 우리 생활과 매우 밀접한 도시시설물입니다. 가로세로 20cmx20cm 크기의 보도블록 한 장 가격은 880원정도니 1제곱미터 당 재료비가 22,000원 이므로 비교적 저렴하게 도시 미관을 가꾸고, 보행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보도블록은 해마다 예산낭비와 무책임 행정을 대표하는 단골 메뉴가 되어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는 것일까요? 워낙 생활에 밀접한 부분이다 보니 잘해서 효과가 큰 만큼 잘못하면 반감도 매우 커서 침소봉대되는 면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파악한 문제점을 3가지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① 첫째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내구성 저하가 큰 문제점입니다. 유독 공공부문 보도블록의 경우, 공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침하가 일어나는 빈도가 유난히 높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바닥을 충분히 다치지 않고 서둘러 시공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는 공무원이 현장을 꼼꼼히 챙기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모름지기 공무원은 현장을 알아야하고 현장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처럼 담당공무원과 시공사의 이름을 명패에 새겨 현장에 영구 설치하는 이른바 <실명 표시제>를 제안합니다.

② 둘째는 무분별한 교체 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보도블록의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어떤 구간이 언제 어떻게 시공되었는지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는 관내 보도블록 지도같은 이력제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력과 자료에 기반해서 예산을 합리적으로 투입하고 배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③ 끝으로 시공 전 폐보도블록의 일정량을 재사용하는 계획을 미리 수립해야만 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콘크리트로 만든 폐블록의 상당량은 색상이 바랜 것 말고는 얼마든지 다시 쓸 수 있는 상태 입니다. 이것을 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일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당부드릴 게 있다면 보행자 안전에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크레인이나 덤퍼 트럭이 운행될 때에는 아이들이나 사람들이 사각지대 노출되어 있으니 반드시 깃발이나 신호 장비를 갖춘 안전요원을 배치했으면 합니다.

지금 공사중인 우동현장에서 발생하는 폐블록의 상당량이 장산터널 진입구 하부 우동천 법사면 포장에 재사용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사례로서 이 자리를 빌려 서정세 도시국장님과 박태래 건설과장님 이하 담당공무원들의 알뜰한 업무수행에 대해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전한 해운대! 튼튼한 해운대! 그리고 알뜰한 해운대!’를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우2동 GS자이 아파트 진입로에 관하여

오 경 미 의원

제211회 임시회 / 2015. 4. 10.



저는 오늘 해운대 구민과 우리 해운대를 찾는 외지인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에 처해있는 현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대책을 건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제의 현장은 해운대로에 위치한 우2동 GS자이 아파트 진입로입니다. 해운대로 승당3거리에서 올림픽교차로 쪽 150m에 위치한 이곳은 4차선에서 3차선으로 줄어드는 병목구간으로 해운대로의 교통체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GS자이 아파트의 차량 진출로 없이 진입로만 조성된 곳 입니다. 차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지난 3월 18일 자정 무렵에 승용차가 진입하여 진출구가 없음을 알고 도로 쪽으로 재진입하려다 보도 경계석에 부딪혀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물론 사람도 많이 다쳤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다른 곳은 올림픽교차로 방향의 넓은 4차로가 4차로와 아파트 진입로로 2개 차선으로 나누어지는 곳 입니다. 차선경계에는 차량진입 규제를 위한 차선안내용 탄력봉이 설치되어 있고 노면에는 아파트 진입로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진입로로 들어서면 오른쪽에는 아파트 진입도로가 있으며, 정면에는 차량 충격흡수탱크 1개와 뒤쪽에 약 30cm 높이의 보도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파트 진입로로 들어 온 차량이 도로 쪽으로 다시 나가려 해도 차선경계 탄력봉과 보도 경계석 등으로 인해 도로 쪽으로의 재진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곳 진입로는 탄력봉과 노면에 아파트 진입로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진입 전에 운전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별도의 안내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입한 차량이 도로 쪽으로 재진입 할 수 있도록 차량 충격 흡수탱크가 설치된 보도일부를 차도로 변경할 수는 없는지요. 제2, 제3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부올림픽타운 아파트 쪽 도로화단을 줄여 차선을 확장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확장공사 시에는 올림픽교차로 방면으로 1개 차선을 확장하여 LG자이 아파트에서 차량진출도 가능하도록 하면 아파트 입주민들의 차량 진출입 편의도모와 아울러 차량사고 예방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운대 센텀 여름축제와 해운대 해수욕장 흡연부스 제안

한 병 철 의원

제211회 임시회 / 2015. 4. 10.



본의원은 지난 2014. 8. 1. 5분발언으로 Coloring Haeundae(가칭 '해운대를 색칠하다')축제를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구청에서는 해운대시장 겨울 빛축제, 관광문화과 축제 관련 용역에 파사드 빛 축제를 반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호응하여 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본의원의 말씀을 경청해주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파사드 빛축제의 경우,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초 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불꽃축제 등으로 파급되는 경제효과가 2일간 728억원이라는 부산발전연구원 보고서 자료를 볼 때, 보름 이상 지속되는 축제의 파급 경제효과 등을 고려, 반드시 해운대에서 꼭 추진해볼 만한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빛공해, 소음공해 및 민원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축제를 시작하지도 못하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에는 매년 최대 100만 명의 인파가 찾는 곳인 만큼, 질서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에 걸맞은 흡연부스 설치를 제안한 업체가 있어 이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천시청, 힐튼 호텔, 충주시 등에도 설치한 사례도 있고, 기존제품에 비해 단열효과가 우수하고, 흡연실 내부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우수한 제연기와 탈취보드, 자동소화 재떨이로 인해 담배 냄새를 정화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올여름 해수욕장 개장일인 6월1일부터 폐장일인 8월31일까지 개소당 300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업체에서 모두 부담하여, 10개소 약 3억원을 전액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흡연부스 관리자로 공공근로자를 고용하여, 1개소당 2000만원 10개소 2억원가량을 해운대주민들을 위한 공공근로자 인건비로 업체에서 전액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업체에서는 이번 여름을 홍보의 기회로 보아 흡연부스설치 및 관리를 위한 5억원 전액을 업체부담으로 한다고 하니, 해운대구에서는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일본에서는 거리마다 흡연부스를 설치하여 시민들의 혐연권뿐만 아니라, 흡연권도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구는 우리나라 제일의 관광지만큼 해수욕장 피서인파를 위한 획기적인 흡연부스를 도입하여 담배공초 없는 해운대, 정리정돈 된 해운대, 흡연권자도 보호하는 해운대, 우리나라의 미래를 선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보육 공공성 강화하여 행복도시 해운대를 만들자

유 점 자 의원

제211회 임시회 / 2015. 4. 10.



저는 오늘 우리 해운대구의 보육에 있어 공공성을 강화하여 진정한 행복도시를 만들자는 내용으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발언에 앞서 여기 계신 백선기구청장과 공무원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법에는 국립, 공립어린이집의 설치와 운영에 관해 언급하는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립 어린이집이 몇 곳이나 될까요?

복지국장님이나 복지부서 과장님들께서는 아마도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전국적으로 약 4만 5천여 어린이집 중에서 국립 어린이집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지방정부가 세우는 공립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통계수치상으로는 전체 어린이집의 6%라고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는 방식이니 진정한 공립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잘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사회에는 어린이집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관련하여 야기되는 불미스러운 사건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닙니다. 단순 안전사고나 아동 학대 사건 뿐만 아니라 국고보조금의 부정사용 등에 이르기까지 어린이 집은 사건과 비리의 온상이라는 인식이 전국각적으로 만연해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담당할 어린이들을 보육하고 교육하는 영역에서 왜 이토록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전문가들과 언론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원인을 분석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 특별히 영유아 보육이 국가목적사업이라는 기본적인 명제를 우리 사회가 다시금 확인하는 데에서부터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영유아 보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적 사무로서 공공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대전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도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대와 무상보육을 외쳤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몇 일전 국회에서 여당의 원내대표께서 대표연설을 통해 사과를 해야할만큼 빈껍데기 공약이 되고 말았지만 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영유아에 대한 보육의 수행 방식이 민간에 떠넘기고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다 보니 표면적으로는 공보육을 내세우기는 하나 허울뿐이고, 실상은 민간 보육 투자자의 수익사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보육사업에 투자한 민간업자에게는 투자한만큼 수익을 올리는 것이 지상과제임은 볼을 보듯 합니다. 즉 어린이집 원장의 입장은 보육에 대한 사명감이나 공공성의 실현 보다는 오로지 어린이집의 수익구조에 매달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교사는 과중한 업무와 형편없는 박봉에 시달리고, 자라나는 아동에게 지급되는 영양 급식은 부실해지기 십상이고, 차량기사나 조리사를 하위로 등록하여 급여를 부정 지급하는 일은 비일비재한 실정입니다.

우리 해운대구는 그동안 '명품도시다, 세계일류도시다' 하면서 온갖 미사여구를 가져다 치장하기 바빴습니다. 물론 900여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부단히 노력하고, 희생하여 우리 구가 외적으로 크게 성장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외모 중심의 허명을 벗고 내실을 다져야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주민이 행복한 참된 행복도시 해운대를 위해 보다 긴 호흡으로 보육의 문제를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공보육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 없이 감시카메라 몇 대 설치하는 땀집 처방으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전국에서 우리 해운대를 부러워하는 그런 보육환경을 만들어 봅시다. 정말 선진보육, 일류보육, 명품보육을 위해 힘을 쏟고 지혜를 모아봅시다.

특히 백선기 구청장님께 당부 말씀 드립니다. 첫 임기 동안 보육의 공공성 개선을 위한 초석을 제대로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절반인 여성이 행복한 해운대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석대삼거리 주변 도로’ 제대로 관리해야

서정학 의원

제212회 임시회 / 2015. 5. 22.



저는 오늘 반송지역 진입부인 석대삼거리 주변 도로에 대한 잘못된 도로관리 실태를 알리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석대삼거리 주변 도로는 노후한 도로포장 상태로 인해 차량통행 불편뿐만 아니라 주변환경도 크게 저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석대삼거리 주변은 마의 도로라고 불릴 정도로 교통 사망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해당 도로는 부산시에서 관리하는 폭 20m 이상의 도로로 부산시에서는 해당 구간의 도로확장 계획을 핑계로 재포장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들의 불편과 사고발생 위험은 무시한 채 언제 시행될지도 모르는 도로확장 계획을 핑계 삼아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직무태만 및 직무유기가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또 마의 도로로 불리는 석대삼거리에는 사고목격자를 찾는 현수막이 항상 걸려 있을 정도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복잡한 교통체계와 곡각지로 인한 위험한 도로구조로 인해 특히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날이면 사고가 다발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행정기관이나 경찰서에서도 아직까지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동래 방면으로 달리던 스타렉스 승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주차되어 있던 다른 승합차를 추돌하였고, 뒤따라오던 승용차까지 미끄러지면서 차주 1명이 사망하는 신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를 포함해 지난해 6개월 동안 사망사고만 3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인근지역 주민들이 교통사고로 숨진 이들의 원혼을 달래고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위령노제까지 지냈다고 하니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마을주민들의 심정을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집행부는 부산시 및 유관기관 등과 적극 협의하여 해당구간 도로의 전면 재포장을 서둘러주시고, 또 석대삼거리 주변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등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문환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큰 의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지역 도로가 하루빨리 주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로로 바뀔 수 있도록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2동 주거지전용 주차장 관련 제언

한 병 철 의원

제212회 임시회 / 2015. 5. 22.



구청에서는 이번 2015년 1차 추가경정 예산과 관련해서 우2동 주거지전용 주차장과 관련한 공영주차장으로의 전환예산을 올렸습니다. 본 의원은 올해 초부터 위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주민갈등이라는 문제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상생의 길을 제안할 것과 시간을 두고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수차례 임시회와 당정협의회를 통해 간곡하게 요청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지역주민과의 소통 없이 위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는 구민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구청이 구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것이며, 주민의 대표 기관이라고 하는 구의회에 대한 존중을 찾아볼 수 없는 처사입니다.

우2동 해당지역은 원래 다세대와 단독주택 등 인구가 밀집한 서민주거지역으로 신시가지 우회 고가도로가 개설되기 이전에는 하나의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신시가지 우회 고가도로가 개설되면서 우2동은 위 도로를 중심으로 동네가 분할되어 지역사회는 단절되었고, 이 지역 주변은 밤낮으로 차량 매연과 소음을 견뎌야 하며 분진으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위 도로 개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구청에서는 그에 대한 보상책의 일환으로서 위 도로 하부공간을 우2동 주거지전용 주차장으로 도입하였고,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었습니다.

구청에서는 우2동 주거지전용 주차장의 회수 근거로서 부산광역시 감사실 조사와 우리 해운대구 감사실 자체조사를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주거지전용 주차장의 시간제 요금징수 부분을 중단하고, 투명한 운용을 통해 얼마든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단 한 번의 경고도 없이 위 주차장을 구청으로 관리 이관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이며, 명분에 불과할 것일 뿐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2동 주거지전용 주차장은 신시가지 우회 고가도로가 개설되면서 동네가 분할·단절될 때 주민들에게 주어졌던 보상책의 일환으로서 이때 구청에서 주민들에게 위 주차장을 10년간만 사용하고 반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면 당시 우2동 주민분들은 동네가 분할되는 것에 대해서 쉽게 동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감사조사 등을 이유로 위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바꿀 수밖에 없다면 인근 주민분들을 위해 영국 런던과 같이 사회적 기업이 참여한 예술문화공간으로 조성하거나 토론토와 같이 언더패스파크를 조성하여 농구장과 스케이트 보드시설 등 오락시설로 활용하거나 멕시코시티의 공공놀이터와 카페테리아, 작은 공원과 같은 시설로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구 추가경정 예산에서는 주민들을 위해 구청 주차장 30대 면적분을 줄이고, 8억원의 예산을 들여 열린공원을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2동 고가도로 하부에도 주차장이 아니라 열린공원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그를 통해 현재에도 위 고가도로의 소음과 분진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을 위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의회를 완전히 무시한 구청의 이번 처사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를 표합니다. 구와 구의회는 협력하여 톱니바퀴처럼 돌아가야 합니다. 구와 구의회의 소통부족으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구민들이 입게 될 것입니다.

정약용의 목민심서에서는 백성을 두려워하고 부양하라고 하였습니다. 구청의 행정은 구민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다른 가능성을 열어두고 주민들을 이해하는 행정을 펼칠 때 진정한 행복도시 해운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행복도시 해운대를 위해

김삼수 의원

제212회 임시회 / 2015. 5. 22.



얼마 전 한 뉴스프로그램을 통해서 반송동에 살고 있는 세쌍둥이 가족의 사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요양병원에 계신 모친의 의료비와 미숙아로 태어난 세쌍둥이의 치료비 등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내용이었습니니다. 이 가족의 사연을 들으면서 저 또한 알츠하이머를 앓고 계시는 75세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으며,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무엇이든 도움이 되고자 비록 제 지역구의 주민이기에 앞서 해운대구 주민이기에 이렇게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센터 담당자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사연이 소개된 후 부산시청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성금과 해당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많은 분들께서 후원도 해 주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고마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들 가족에게는 이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입니다마는 앞으로 아이들의 양육에 필요한 경비와 추가적으로 발생될 의료비들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차상위제도라는 것도 있으나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있어 신청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관련부서에 확인을 해 보니 행정적으로 조금만 관심을 가져준다면 어려운 일도 아닌 듯합니다.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공무원이 대신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힘들게 일해서 내는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불편함을 한 발짝 더 다가가서 헤아려준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주민이 행복한 행복도시 해운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면 매년 연례행사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금모금을 통해서 여러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쓰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세쌍둥이 가족처럼 해운대구에 거주하시는 복지사각지역에 계신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배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또한 해운대복지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 동네 슈퍼맨'이라는 프로그램을 구청 차원에서 적극 벤치마킹하여 노인일자리도 만들어내고, 복지의 사각지역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을 적극 발굴하여 이런 분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모든 정책은 해운대구 주민이 우선이 되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혜택 또한 해운대구 주민이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곧 있으면 해운대모래축제가 개막하며, 그와 동시에 해수욕장이 개장하게 됩니다. 전 세계가 해운대의 발전에 빛나는 화려함을 주목할 때 우리는 그 화려함 뒤에 가려진 어두운 곳에 보다 더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듯 복지 앞에서도 모든 주민은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해운대 주민의 행복을 위해, 행복도시 해운대를 위해 우리 모두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송정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 제안

임 말 숙 의원

제212회 임시회 / 2015. 5. 22.



실록이 짙어가는 가정의 달 5월에 많은 관광객들이 해운대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느끼는 생각이지만 과연 해운대가 제대로 된 관광정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준 빼어난 관광자원에 인공적으로 가미된 마린시티, 센텀시티가 고작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은 저만의 생각인지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현재 해운대구 관광정책은 관광문화과의 관광진흥팀, 문화축제팀에서 주로 업무를 하고 있으나 공격적인 관광마케팅은 어디에도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에 위한 해운대 관광마케팅이 부재되어 있고, 팀명조차도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에 구청장님께서도 해운대 하면 생각나는 관광자원이 없다고 말씀하셨듯이 해운대 하면 해운대해수욕장의 잘 보존된 그대로의 해수욕장, 송정해수욕장 하면 생각나는 것이 없는 형편입니다. 잘 발달된 도시에 오히려 찬물을 끼얹는 것이 교통

문제로 귀결되면서 사람들이 찾아오기 꺼리는 도시로 전락하지 않는다고 단정 짓기도 어려운 현실에 이르렀습니다.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올 겨울에는 스케이트를 타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듯이 이제는 송정해수욕장의 발전을 얘기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어느 분이 말씀하시기를 송정해수욕장은 전국적으로 덜 알려져 있지만 물도 깨끗하고, 잘 보존되어 있어 오히려 메리트가 더 많다고 합니다. 최근에 송정해수욕장을 자주 찾아가보면 부산을 비롯한 전국 대학생들의 MT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을 정도로 생동감이 넘치고, 활기찬 관광지라는 생각을 하였으며, 지난 4월 24일 탈락해조류 대량유입 대응방안을 위한 주민간담회에서도 지역주민들은 하루빨리 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관광문화과에서는 한 번도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주민들과 의논을 하거나 의견을 수렴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책부재 속에 다른 지자체의 활발한 공격적 마케팅과 발전의 몸부림에 기존의 해운대의 명성만으로 지속적으로 최고의 도시가 될 것이라 판단하는 것은 너무 안일한 생각이라 판단합니다.

저는 대안물색으로 감히 집행부에 몇 가지 제안해 봅니다. 대학생들의 MT메카로 발돋움하고 있는 송정해수욕장을 제2의 해운대해수욕장으로 거듭나도록 사계절이라는 시간적 개념과 육해공이라는 공간적 개념을 도입한 다양한 정책적인 관광자원의 개발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첫째, 육지에는 현재 계획하고 있는 줍와이어의 설치도 좋습니다마는 줍와이어 하나만으로는 관광객의 유치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 송정초등학교 인근에 오토캠핑장의 개발을 통해 구 송정역의 시민갤러리와 연계하고, 대학생 MT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바다에는 해녀들이 아직도 물질을 하면서 생생하게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고민하셨던 서핑활성화와 연계하여 해녀체험센터나 박물관을 만들어 해녀체험과 함께 해녀들의 기록물을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서핑활성화를 말씀하셨는데, 단순히 구청장배 서핑대회로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비수기에는 서핑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하프 파이프 설치와 서핑의 산업화를 위해 관련 업체의 유치도 과감하게 고민할 때며, 이와 연계하여 새로운 산셋축제 같은 스토리가 있는 축제의 개발도 검토 하였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에는 현재 서울에서 시작하여 각광받고 있는 모형비행기대회나 제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비행기를 활용한 항공관광도 검토해 볼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러한 관광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광문화과 내에 관광마케팅팀을 신설하여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주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저의 제안이 사장되지 않고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검토와 함께 제2의 해운대 도약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백선기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을 기대합니다.

하절기에도 주민과 함께

유점자 의원

제213회 정례회 / 2015. 6. 22.



어제 서울시에서는 매우 창의적이고 독특한 사업을 시작한다고 보도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쿨루프(Cool Roof) 사업이 바로 그것인데요. 쿨루프 사업이란 옥상이나 지붕에 흰색 페인트를 칠해서 열섬현상 완화와 난방에너지 절약 효과를 거두는 사업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옥상이나 지붕 그리고 옥탑방 같은 곳에 흰색의 차열 페인트를 칠해줌으로써 건물의 열기를 식혀 열섬현상을 예방하는 방식인데, 이를 위해 서울시는 '더 베이직 하우스'라는 회사의 후원을 받아 주거환경이 열악한 옥탑방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공개모집해서 무료로 페인트 시공을 해주는 캠페인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름철 지붕이나 옥상은 뜨거운 태양열을 흡수해 건물내부를 뜨겁게 해서 냉방에너지 사용량을 증가시키고, 또 도시 전체의 야간 열섬현상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만약 햇빛과 열을 반사하고 방사하는 효과가 있는 하얀 페인트를 지붕에 칠해주면 뜨거운 열기가 지붕에 축적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쿨루프 공법은 옥상녹화와 같은 다른 방식의 열섬방지 시설보다 비용이 4분의 1 정도로 낮다는 장점이 있고, 경사면이 있는 지붕에도 시공할 수 있으며 시공에 따른 누수의 위험성도 없습니다. 참으로 창의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간단한 아이디어 하나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있는 주민들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차열 및 방수기술인 쿨루프 공법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가장 경제적인 10대 과제로 선택한 바 있습니다.

미국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에서 전 세계 27개 도시를 대상으로 수행한 모의실험 결과에서 쿨루프 공법으로 지붕을 시공할 경우 냉방부하가 18%에서 최대 93%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해운대구 반송동과 반여동은 부산시 정책 이주지역입니다. 과거 부산시의 정책적 오판으로 인해 이곳 주민들의 주거환경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다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이 예상됩니다. 이 뜨거운 여름, 우리 해운대구 반송동, 반여동에서의 도시재생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우리의 재정이 어떤 우선순위를 가져야 하는지, 서울시의 쿨루프 사업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을 위한 용역 이대로는 안된다.

심윤정 의원

제213회 정례회 / 2015. 6. 22.



2013년 용역 계약 146건에 25억 2,358만 1,120원, 2014년 용역 계약 160건에 26억 2,016만 9,950원, 2015년 6월 현재, 그러니까 반년이 지난 것이지요. 현재 106건에 23억 2,322만 2,560원입니다. 항간에 ‘행복도시 해운대’가 아닌 ‘용역 해운대’라는 얘기가 빈말이 아닌 듯합니다.

7대 의회에 들어 해운대구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만든 만큼 용역에 대한 관심으로 지난 6월 5일 해운대 관광특구 진흥계획수립 중간 보고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 보고서를 미리 검토한 결과 기존 여러 용역들, 예를 들어 부산광역시 2014년 부산관광 진흥계획수립 용역, 해운대구 달맞이 언덕 관광활성화방안 용역, 해운대구 지역문화 진흥계획수립 용역과 동 안 관광 문화과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었던 관광진흥계획과 유사한 내용들이 많았고, 심지어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은 현실성이 부족한 사례 제시들도 있었습니다.

중간 보고회 시작 전 관광경제 국장님의 “요즘 용역 보고회를 감사하듯이 한다.”는 말씀과 저의 지적에 발끈하며 “의원님, 공무원 나무라듯 하시면 안 되죠.”라는 교수님의 말씀, 우리 구의원의 역할이 공무원을 나무라는 것은 아니죠. 견제와 감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갑과 을이 바뀐 황당스러운 용역 중간 보고회, 이러한 형식적인 용역 보고회, 용역을 위한 용역, 하지 마십시오! 주민들의 혈세, 제대로 쓰십시오!

지난해 국민권익위 학술 용역에 관한 각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와 언론 보도 등을 분석해 파악한 문제를 살펴보면,

1. 용역 심의회의 형식적 운영, 2. 연구 용역과제 선정의 사전검증 미흡 및 남발 가능, 이는 결국 짜깁기 표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또한 자치단체장의 공약사항 및 선심성의 급조된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타당성 검토 명분으로 용역이 남발될 가능성이 있음, 계획성 없는 용역으로 얻은 타당성 결과는 실효성이 떨어져 결국 예산 낭비는 물론 사업의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국가권익위원회는 학술 용역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선정 단계, 집행 단계, 사후 관리 단계, 법제도 단계 4단계의 제도개선안을 권고한 만큼 용역을 위한 용역, 이대로는 안 됩니다.

쿨비즈 부산에서는 해운대가 앞장서자!

김삼수 의원

제213회 정례회 / 2015. 7. 3.



메르스라는 신종 호흡기질환으로 인해 보건 당국에서는 24시간 비상체제에 돌입하였고, 해수욕장에는 관광객이 줄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운대를 지켜야 할 우리들까지 의기소침해 있어서는 주민들과 해수욕장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 상인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활기차게 움직여야 하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바로 쿨비즈(Cool-biz)를 해운대구가 앞장서서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고온을 경신할 것이 뻔한 올 여름 해운대구 공무원부터 복장을 간소화해서 직원들의 근무의욕도 고취하고 에너지 절약에도 조금이나마 이바지하고자 제안을 올립니다. 기본적인 예의만 갖추었다면

복장을 간소화해도 업무에 크게 지장이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통계 자료에서도 보시듯이 여름철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업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선 구청장님과 의장님부터 몸소 실천해 주실 것을 조심스레 당부드려 봅니다.

주민들 및 직원, 그리고 다가올 바다축제 행사에 간편 복장으로 나서게 된다면 오히려 더욱 친밀한 이미지를 심어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없던 옷을 새로 장만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메르스 여파로 보건 당국 공무원들은 24시간 비상체제에 있으며, 그로 인해 일부 피해를 보고 있는 식당에는 공무원들이 일부러라도 방문한다는 소식을 들어 잘 알고 있고, 또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메르스로 인해 해수욕장 방문객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작년 태풍 '나크리'로 인한 폐목재 사건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터라 상인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에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해운대해수욕장은 메르스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몸소 실천하는 행사를 한번 해 보는 것은 어떨는지요. 구청장이 직접 해수욕장에 몸을 담가서 해수욕장이 메르스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전 세계에 홍보해 보는 것도 해수욕장 활성화를 바라보는 주민들과 상인들에게는 하나의 큰 희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여동 도시첨단산업단지(드림시티) 조성에 덧붙여

조영진 의원

제213회 정례회 / 2015. 7. 3.



국내 첫 메르스 확진 환자가 40여 일 만에 완치 판정을 받는 등 메르스 사태가 안정세로 돌아서고 있지만 전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 국민들에게 발생한 일이라 관광객 감소, 기업·개인의 경제활동 위축 등 심각한 경제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 같아 본 의원 역시 매우 걱정스러우며 정부 및 관계기관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기대해 봅니다.

며칠 전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부산시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즉 드림시티 건설을 반여동 188만평방미터, 약 57만평 부지에 9,000억원을 투입해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지식산업센터, R&D센터, 고층 주거복합건물 건설, 쇼핑몰, 특화 병원 등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부산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시키겠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동안 그린벨트로 묶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이루어질 이번 조성사업을 접하고 지역구민들과 함께 대단히 환영하며 정확한 마스터플랜과 분, 초 단위까지 표시된 로드맵을 기반으로 차질 없이 성공시켜주기를 기대합니다. 한편 성공적인 완공을 확정짓기 위하여 본 의원은 여러분들과 함께 몇 가지 사항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검토사항은 도로율입니다. 해당 부지는 주식회사 풍산 및 주변 지역으로 이곳은 아직도 편도 1차선 도로에 인구가 6만 4,000명이 거주하고 차량들이 교차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겨우 보행자 도로를 완성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반여동 지역의 교통사정을 완화하고자 지난 1996년부터 착공한 소위 반여동 우회도로는 매년 50m 내지 100m씩 내려왔고, 20년이 지났지만 전체 공정률은 60%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다 하니 단순 계산으로도 2025년이나 되어야 완공되는 이 도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통지옥에 사는 주민들을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두 번째 검토사항은 도시기반시설입니다. 부산시 보도 자료에 의하면 이곳 첨단산단은 6조 3,000억원의 생활 유발효과와 함께 6만개의 우수한 청년 일자리가 생긴다고 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의 거주지를 위한 주택, 아이들을 위한 학교 및 여가·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 등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부산시의 입장과 대책을 촉구합니다.

세 번째 검토사항은 해당 부지 주변에 우리 서민들과 친근하고 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는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의 존치 여부입니다. 특히 부산시는 도매시장이 첨단산단의 관문이 되는 위치이므로 랜드마크를 세우기 위해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존 상리·중리 주민들 바로 옆에 경제활동을 하기 위한 새벽시간부터 풍성하고 신선한 채소, 과일을 항상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존치 및 현대화가 될 수 있도록 부산시에 강력하게 우리 구의 입장을 전달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운대수목원~운봉마을’ 간 임도 조성 제안

서정학 의원

제214회 임시회 / 2015. 9. 1.



웰빙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반송 지역에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산책로를 겸한 임도 조성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석대동 옛 쓰레기매립장 62만 8,000㎡ 부지에는 총 사업비 563억원이 투입되는 해운대수목원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반여·반송동 일원 188만㎡ 부지에도 9,000여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반여첨단사업단지 조성사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태하천으로 거듭난 석대천변 옹기골 자연녹지 지역에는 대규모 실외체육시설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운대수목원 조성사업이 완공되면 부산은 물론 인근 지방의 많은 관광객들이 반송지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석대지역에 들어서는 해운대수목원과 반송2동 운봉마을로 이어지는 약 3km가량의 산길은 평소에도 지역주민들이 산책과 운동을 위해 자주 이용하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 해운대수목원과 연계하는 임도를 조성한다면 산불로 인한 산림보호라는 본래의 목적과 함께 지역주민과 수목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웰빙 자원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최근 10여 년간 해운대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한 관광지 주변에 달맞이길, 관광 테마도로와 문탠로드, 마린 시티, 영화의 거리, 수영강 시민공원 산책로 등 많은 산책공간이 조성되었습니다. 반송지역에도 석대 생태하천 조성으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산책공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석대천과 축을 이루는 임도형 산책로가 추가 조성된다면 반송주민의 생활에 큰 활력소가 될 것이라 생각하면서 아래 사항을 제안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해당 구간에 대한 현장조사와 함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시행 여부와 구체적인 사업방향을 검토해 주시고, 아울러 해운대수목원 조성사업의 진행상황 설명 및 수목원 조성 이후 지역 자원과 연계 방안 등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해운대 바가지 요금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

한 병 철 의원

제214회 임시회 / 2015. 9. 1.



부산의 올 여름 해수욕객 수가 4,515만명을 돌파함으로써 2007년의 최고 기록을 경신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특히 우리 해운대구에서는 전국적으로 해운대 해수욕장을 홍보했던 것이 메르스라는 역경을 딛고 더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여서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운대의 ‘바가지요금’이라는 주제로 언론의 비판은 예년과 같이 여전했습니다. 8월 5일 부산일보 ‘해운대 바가지 숙박은 줄고 주차는 여전하다’, 8월 5일 YTN ‘피서지 바가지요금은 여전’, ‘휴가 갔다 오히려 스트레스’, 8월 5일 아시아투데이 사설 ‘조금도 바뀌지 않는 피서지 바가지요금과 무질서’, 8월 12일 MBC ‘규정 따로 요금 따로’, ‘해변 바가지 주차비 기승’, 8월 14일 세계일보 ‘피서지 바가지 그만 좀 하십시오’, 등 이 외에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는 검색창에 ‘해운대 바가지’로 검색했을 때 나온 기사들만 뽑은 것입니다.

바가지요금을 개선하기 위해 해운대구와 지역주민위원회 등이 중심이 되어 자정운동을 펼치고 있다는 기사도 접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자정노력만으로는 바가지요금이라든지, 자릿세 징수행위, 가격표 미게시 및 표시요금 초과 징수행위, 불법 시설물 설치영업, 입찰을 받은 업체들의 재하청 행위 등 상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근절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요와 공급을 지나치게 초과하는 성수기에 발생할 수 있는 관광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광객들이 믿고 다시 찾는 해수욕장이 되려면 경남도의 ‘바가지요금 전액 환불제’, 강원도의 ‘가격 상한제’, ‘물가 모니터단을 활용한 피서지 현장 모니터링 실시’, 황성군의 ‘착한가격 업소 홍보’, 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옥외 가격표시, 가격 공개 등이 필요합니다.

바가지요금 근절에 대한 행정 조치가 어렵다고 하면서 손을 놓을 것이 아니라 구청 차원의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특별위생점검의 불이익이 필요합니다.

관광객들의 해외여행 발길을 국내로 되돌리려면 바가지요금 근절 명분을 앞세운 정책적 혁신이 필요합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관련하여

서강식 의원

제214회 임시회 / 2015. 9. 10.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관련하여 본 의원의 소신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기억으로는 2006년부터 상대적으로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재송, 반여, 반송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건설, 소규모 주차장 및 주거지전용 주차장 등 많은 사업을 해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재송, 반여, 반송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신 4대, 5대, 6대 선배의원님과 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외부인의 주차수요가 많은 우·중·좌동의 공영주차장 사업 및 소규모 주차장 사업은 지금까지는 미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하고 싶은 내용은 우·중·좌동, 특히 구 청사 및 중1동 동사 주변에도 공영주차장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영주차장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중·좌동을 방문할 경우 공영주차장이 없어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해운대 재래시장, 좌동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구민들께서 주차 때문에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 청사의 주차장 협소로 인해 별관과 스펀지 앞 주차장에 관용차량을 이동 주차하고 있습니다. 별관과 스펀지 앞 주차장까지 이동 주차하는 데 필요한 시간, 연료비, 업무차 외근을 나가는 직원들이 스펀지 앞 주차장까지 도보로 왕복해야 되는 고통이 따릅니다.

결론은 우선적으로 구 청사 및 중1동 동사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행복도시 해운대 건설에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엄마를 위한 도시 해운대 - 엄마상자 제안

한병철 의원

제215회 임시회 / 2015. 10. 14.



지난 2015년 3월, 210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구청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출산율 제고의 획기적인 대책인 공공 산후조리원이나 냉동난자의 지원을 역설하였다. 출산율 제고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에 더불어 지난 2015년 10월 7일 EBS에서 방영한 ‘핀란드의 엄마 상자’라는 정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동영상 내용 - 핀란드의 복지정책 중의 하나로 계절별 옷, 턱받이, 온도계, 그림책, 장난감 등 패키지용품을 담은 상자를 출산을 앞둔 임산부에게 공급해주는 엄마 상자를 소개)

물론 감성에 치우치고,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은 구청의 일자리복지전략단이나 경제진흥과, 민간이 협력해서 진행해 볼만한 사업이라고 생각된다.

최근 ‘맘충’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였다. ‘맘충’이라는 말은 엄마를 뜻하는 영어 단어 ‘맘(Mom)’과 벌레를 의미하는 한자 ‘충(虫)’을 합성한 인터넷 신조어인데 누리꾼들은 이 단어를 ‘우리 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부모를 지칭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그만큼 엄마라는 존재만으로 우대받지 못하는 개인적인 사회에 들어선 것 같아 씁쓸하면서도 이런 상황에서 임신하려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우려가 된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 구청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하여

유점자 의원

제215회 임시회 / 2015. 10. 14.



최근 매우 충격적인 사건을 전하는 뉴스를 통해 ‘캣맘’이라는 용어를 많이 접하게 되었다.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한 18층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아파트 아래 화단에서 고양이집을 만들던 A씨가 누군가 던진 시멘트 벽돌에 머리를 맞아 숨지고, 함께 있던 B씨도 그 벽돌 파편에 맞아 다친 것이다. 한편에서는 헌신과 자비를 쏟아 부으며 길거리의 동물을 보살피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동물에 대한 무지막지한 혐오를 드러내다 급기야 살인을 저지르는 지경에 이르는 양극단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길고양이를 보살피는 사람들에게 나름의 동기가 있듯이 길거리 동물에 대한 기피 심리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행정에서는 서둘러 주민들이 서로의 차이와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생길

수 있도록 통합의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길고양이 불임수술인 중성화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하여 해운대 지역 길고양이 개체 수 관리를 통해 일정 수가 넘지 않도록 해 주기 바라며,

두 번째, 각 동별로 캣맘 활동을 하는 분들의 실태를 파악하여 그들의 경험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길고양이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았으면 한다.

세 번째, 선진국들은 공생의 존재로서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수준의 합의가 있다. 비록 우리 사회가 장기 불황으로 인해 살림살이가 힘든 형편이지만 애완동물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는 실정으므로 우리 사회도 동물복지와 동물권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동물을 매개로 어린이와 부모가 정서적으로 친밀감을 나누고 소통하듯이 사람과 사람, 이웃과 이웃이 소통하는 데 있어 반려동물의 역할은 매우 커졌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주민들의 비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종종 공원에서는 반려동물을 데리고 나온 분들과 그렇지 않는 분들 사이에 미묘한 긴장이나 예기치 못한 충돌이 발생한다. 그래서 해결의 첫 단추로서 해운대에 강아지 전용 산책 공원 같은 곳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반려동물을 데리고 나온 사람과 반려동물을 싫어하거나 동물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하는 사람 모두가 편안하게 공원 산책을 즐기기 위한 시설이 필요하다. 이런 반려동물을 위한 정책은 반려동물과 주인을 위한 정책이기도 하지만 역으로 보면 반려동물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반려동물과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 주민들을 배려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

대천공원 확대조성과 체육공원 시설 확충 필요성에 대한 제언

임 말 속 의원

제215회 임시회 / 2015. 10. 14.



대천공원 확대조성과 체육공원시설 확충 필요성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마다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단연 녹지와 공원의 확대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해운대구의 도시공원 수준은 규모와 시설 면에서 세계적인 대도시의 공원에 비해 매우 미흡하다. 대천공원은 신도시 건설계획에 따라 1992년 도시공원조성 계획에 의거, 조성된 공원으로서 부산의 대표적 명산인 장산을 찾는 등산객들과 주민들이 즐겨 찾는 여가공간으로 연면적 78,153㎢ 광장, 운동시설, 야외무대, 유흥시설 등 공원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대천공원은 많은 문제

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첫째, 대천공원은 규모가 협소하고 기능이 미흡하다. 대천공원의 연면적은 78,000여㎢이지만 이는 아파트 주변 녹지대와 춘천변 도로 및 광장, 녹지대를 포함하는 전체 면적으로 주민들이 공원이라고 인식하는 순수 대천공원 면적은 협소한 실정이며, 가족단위의 휴식과 힐링을 위한 공간, 도시 속에서 자연을 만나는 문화와 생태공간으로서의 시민공원 기능이 부족하다.

둘째, 이용시설이 부족하고 사유지가 많다. 공원 내 공원시설은 공연장, 평의자, 종합놀이대, 운동기구, 산림생태관찰센터, 화장실 등으로 이용시설이 매우 부족하며, 공원 상부 개인 사유지에 조성된 텃밭, 비닐 하우스 등으로 공원 주변 경관이 불량하고, 사유지에서의 불법행위가 빈번하다.

셋째, 장산 등산객의 공원이용 통행이 불편하다. 공원 입구에서 체육공원까지의 도로가 협소하여 차량과 자전거 그리고 등산객들이 혼재되어 있어 통행에 많은 불편이 있으며 또한 별도의 주차장이 없어 주말이 되면 불법주차로 인해 불편이 많다.

따라서 대천공원과 체육공원의 활성화를 위해 석산농원 일대의 사유지를 매입하여 공원의 확대와 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도입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대천공원 야외무대에 대형스크린을 마련하여 이야기와 추억이 있는 야외영화관을 마련하거나 대천공원 호수 주변에 실개천과 분수대를, 그리고 산림관리소 부근에 음악도서관을 설치하는 등 체육공원 일대에도 체육시설을 보강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신시가지가 조성된 지도 벌써 20여 년이 되었으며, 1995년 305,000명에 불과하였던 우리 구 인구는 10년이 지난 현재 426,000명으로 증가하였고, 구에는 70여개의 공원이 있지만 대부분 소규모 어린이 공원에 불과하며, 규모와 시설, 접근성, 이용도 측면에서 대천공원이 가장 앞서고 있는 있으나 해운대를 대표 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다.

삶의 질이 중시됨에 따라 공원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는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실정에서 언젠가는 공원의 확장은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며, 무엇보다 대천공원 주변 사유지의 경관 불량과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대천공원 확대를 위한 정책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해수담수화 실용화에 관한 의견

유점자 의원

제216회 정례회 / 2015. 11. 20.



‘정관 신도시 제외한 기장군에 보다 더 좋은 수돗물 공급 된다’ 2013년 5월 16일자 기장 신문의 제목이다. 부산상수도 본부에서는 ‘해수담수물은 심층수라고 보면 된다’고 하면서 현재 수돗물보다 좋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취수한 바닷물을 역삼투압 방식으로 염분 등 불순물을 제거한 후 칼슘, 칼륨, 규산 등의 미네랄을 첨가하여 해수담수화 시설능력이 1일 4만 5,000톤으로 한정되어 있어 정관 신도시 주민들은 혜택을 볼 수 없는 것을 아쉬워할 것이라고 적고 있다.

홍도, 추자도, 가파도, 비양도의 국내 곳곳과 중동지역 등 각국의 주민들에게는 해수담수화물은 청량제와 같다. 하지만 기장군민에게 공급되는 해수담수화는 1,954억원, 구비 823억원, 시비 425억원, 민자 706억원의 투입과 완공 후 운영 관리상에서 발생할 과도한 운영비 부담의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 해수담수화 시설의

근거리에 있는 고리원전에서 방출되는 고농축수의 바다 방류로 인한 피해수준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다. 해수담수화 수돗물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표면화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상수도 본부에서는 논란의 한 축이었던 방사선 물질 요오드 131과 삼중수소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기장해수담수화 수돗물의 미국국제위생재단(NSF) 추가 검사결과 방사성 물질 요오드131과 삼중수소의 불검출로 나타났다며 해수담수화 수돗물의 안전을 재확인하고,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의 재추진을 확인하고 있다.

삼중수소는 바닷물에 저농도로 존재하고, 역삼투압 방식으로는 전혀 제거되지 못하고 100% 바로 유입되기 때문에 현재 분석방법으로는 어느 일정 기준치 이하로 검출될 때 불검출로 보고 있다. 현재 기장 앞바다에서 저선량의 삼중수소가 검출되고 있고, 그대로 수돗물에 들어오고 있다. 방사선 피폭에 관한 연구 결과, 저선량에도 장기간 피폭시에는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국립과학아카데미 보고서에도 언급되어 있고, 국내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과서에도 언급되었다. 따라서 수돗물은 장기간 마시는 관계로 아무리 기준치 이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장기간 음용하기 때문에 발암의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한다. 피폭 가능성이 있는 해수담수물 식용화는 철회되어야 한다.

도시 주변의 녹지를 보존하기 위해 지정하는 개발제한구역과 군사 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을 보호하고 군작전 수행을 위해 국방부장관이 설정하는 군사보호구역의 관련 법규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적 제재가 따르게 되어 있다.

두 관련 법규보다도 더한 제재가 따르는 것이 상수원보호구역 위반행위이며 안전한 상수원도의 확보와 수질보전 때문에 필요한 구역을 지정해 상수원의 물이 유해물질로 오염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관련 법규에 모든 시민들이 공감할 것으로 생각된다. 고농축수의 바다 방류가 이루어지는 고리원전단지에서 해수담수가 식수로 공급되는 기장군 일대는 15.5km에서 짧게는 7.7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상수원보호구역이다. 수질오염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 농약, 폐기물, 오수분뇨, 가축분뇨 등을 버리는 행위로 이웃인 기장군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일전에 송정에서 해운대구로 연결되는 상수도관 공사를 현장에서 저지한 적이 있다. 부산상수도 본부에서는 송정관내까지 해수담수화를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임을, 해수담수화 수돗물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

해양레저사업 인가 선결조건 및 제언

최영곤 의원

제216회 정례회 / 2015. 12. 24.



지난 제215회 임시회에서 해양레저사업에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어 있어 그냥 계속 추진해 갈 것이 아니라 사업 전반에 대한 재점검 차원에서 구의회, 주민 대표, 전문가로 구성된 '특화사업 재검토 포괄 협의체'의 구성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체의 공정하고 합당한 결론에 따라 사업 여부를 선택할 것을 주문 하였습니다.

그러나 구는 본 의원의 제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내년 1월 중 특구추진 위원회를 1회 개최하고, 이르면 5월 늦어도 7월 중에 송정 두 곳을 개장한다고 합니다. 불과 5~7개월 내에 준공을 내주고, 사업을 허가하겠다는 것입니다.

준공인가와 영업 허용 전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제기한 내용들과 이후 추가 사항들을 포함한 각 사업장별 보완 및 점검해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감독관청인 구는 말할 것도 없고, 추후 특구추진위원회에서 반드시 하나하나 빠짐없이 확인하고 조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강행할 경우 본 의원은 해결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내년 초에 개최하는 특구추진위원회는 형식적 통과 의례 절차가 아닌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재구성하고, 미흡하면 예정한 개장이 늦춰지더라도 2~3회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는 등 모든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도 위원회에서 제기된, 그리고 이미 제기된 많은 문제점들을 감추려 하지 말고, 적극 수정·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각 사업장별 주요 문제점 및 확인 사항들을 열거하겠습니다. 관련 부서는 참고하여 추후 사업 점검과 완결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첫째, 협약서 미체결과 사후 협약서 문제입니다. 협약서는 갑인 총괄 사업자 구와 을인 단위사업자가 상호 준수해야 할 내용의 문서로 협약에 대한 이행 불능이나 금지 행위를 할 시에는 손해배상금과 허가 취소가 발생하는 중요 사안이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들 간 사전에 체결되어야 함이 원칙이나 동백섬의 경우 올 7월경에, 그리고 나머지 3곳은 아직 미체결 상태입니다. 올 초 특위에서 확인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해양레저특화 민간공모사업 특별위원회'의 '제3차 회의 자료'(관광문화과)에 의하면 초안인지, 가안 인지, '해양레저특화사업 운영협약서'가 2015년과 2014년 10월에 이미 만들어져있고, 동백섬 해양레저기지 협약서의 경우 2015년 7월과 2015년 1월 간 '연면적', '사업기간', '을의 의무' 등이 상이합니다. 따라서 내용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둘째, 준공인가 전 감독관청인 구는 최종 사업장의 면적을 실측해야 합니다. 준공인가 내지 영업이 허용된 동백섬, 송정 죽도, 수영강변 계류장의 최종 실측 여부와 실측치 간 차이는 없는지 밝혀져야 합니다. 구덕포 컨트롤하우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업장 네 곳의 상업시설 면적에 대한 전면적 재측정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셋째, 준공인가 전 감독관청인 구는 해양레저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는지 최종 확인해야 됩니다. 송정 두 곳의 경우 상업시설을 위한 준비만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방파 시설과 암반 제거나 정리도 난제 사안입니다. 수영강변 계류장의 경우 주차장 문제와 공유수면 위 등기 문제가 핵심 사항이고, 동백섬의 경우 방파제 설치비용 분담과 정온도 측정치의 존재 여부와 신뢰성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넷째, 준공인가 전 감독관청인 구는 하수관로 설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준공인가가 난 송정 죽도의 경우 미설치 상태입니다. 동백섬과 수영강변도 확인이 요구되고, 구덕포의 경우는 인가 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점·사용료 체납 문제입니다. 현재 수영 요트장 점용료 2,400억원 감면 문제, 힐스테이트아파트 도로 점용료 약 59억원 부과로 형평성과 특혜성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원칙에 따라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도시계획위원회, 특구추진위원회, 부산시 시설계획과 등의 태풍 및 해일 등 재해 대비 재난 안전 대책을 요구한 바, 모두 적절하게 조치하고 반영한 것으로 돼 있지만 송정 두 곳의 사업 현장은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추가 확인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일곱째, 구덕포 해양레저 컨트롤하우스의 사업시행계획상 도입 레저장비와 2013년 7월 배덕광 구청장의 현장 방문 사업계획보고서상 도입 장비와 상이합니다. 사업 내용의 변경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덟째, 구덕포 해양레저 컨트롤하우스는 기존 유성환 대표에서 새로운 대표이사로 변경되었습니다. 전환 되는 전반적 과정, 사업 내용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전반적인 내용을 반드시 점검하고, 확인할 것을 거듭 요청합니다.

또한, 의회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항도 있다고 봅니다. 지켜나가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제9호

2015. 1. 1~2015. 12. 31

해 / 운 / 대 / 의 / 정

칼럼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선진의회





최영곤 의원

해운대를 공유하다...

공유경제란 Sahring Economy로, 산업 전반에 숨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산시도 지난 3월 19일 ‘공유경제 촉진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으나, 지방선거 등의 영향으로 아직 실제적인 활약이 미비한 상황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기초단체로는 최초로 해운대구에서 ‘공유경제 활성화 촉진 조례’가 11월 정례회에서 통과됐다.

조례가 통과 된다고 해서 없던 것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에 공유경제를 실천하고 있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통해 점차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욕속부달[欲速不達]이라고 했다. 급하게 없던 것을 새로이 하고자 한다면 오히려 하지 않음만 못한 것이 된다고 생각한다. 천천히 주민들의 인식에 스며들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고자 한다. 젊은 친구들도 생각을 바꿔, 세상의 다양한 경험을 체험하고 이를 경험삼아 좋은 아이디어로 나만의 창업을 하는 것은 어떨지, 공유경제가 수많은 젊은 친구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는 없지만,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반송 행복나눔센터의 ‘모두의 하우스’라는 1인 기업, 외국의 ‘AirBnB’라는 회사도 있다. 이 회사 대표의 경우 30대 초반의 젊은 청년이며, 외부의 좋은 아이디어를 내 것으로 만들어 창업에 성공한 사례이다. 100% 창의적이거나 내 것이 아니어도 좋은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것도 공유경제의 한 사례가 될 수 있다. 야간에는 호프집이지만 낮에는 공간을 빌려 커피숍을 운영하는 업체, 커피숍이지만 세미나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업체, 커피숍에서 갤러리 투어를 진행하는 업체, 해운대 해수욕장의 유희 공간을 거리공연의 장소로 꾸민 버스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유경제의 플랫폼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운대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아가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공유경제의 깃발이 펄럭이는 그날을 꿈꾸어 본다.

칼럼



한병철 의원

전통시장 살리는 대형마트영업규제 아닌 상생의 길

지난 2014. 12. 12. 서울고법에서 대형마트 강제 의무휴업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형마트 강제 의무 휴업 처분으로 달성되는 전통시장 보호 효과는 뚜렷하지 않고 아직도 논란 중인 반면 맞벌이 부부 등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은 크고 소비자 선택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적극 동의한다.

우리 해운대구에서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1항을 통해서 영업시간 제한을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고,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주 넷째주 일요일로 지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대형마트 영업의 규제가 과연 전통시장을 살리는 매출의 확대로 이어지는 인과관계가 있는가이다.

지난 2014. 12. 1 KBS기사에 따르면 2000년 초반부터 시작한 전통시장 현대화에 들어간 돈만 3조 원이 넘는다고 한다. 그런데 현대화 사업 10년이 넘었지만, 40조에 육박했던 전통시장 매출은 오히려 반토막이 났다.

시설 현대화에만 치중한 나머지, 시장 상인들의 마케팅 교육, 문화 관광형 시장 개발 등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의 노력이 부족했고,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시장 현대화 사업이 오히려 세금만 낭비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대형마트의 규제도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대형마트영업의 규제도 전통시장 살리기를 위한 일종의 방법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보다 대형마트의 영업의 길은 열어주고, 그에 대한 이익금의 일부를 전통시장의 문화관광형 투자로 연결하는 방법이 전통시장을 살리는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해운대구 경제진흥과에 그러한 방법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다른 기초지자체에서는 시행하고 있지 않은데, 해운대구에서만 조례를 변경하여 그러한 규제를 풀고 새로운 방법에 도전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고, 대형마트의 규제를 풀어주는 것을 전제로 한 일부이익금의 전통시장 투자명목의 처분이 부당결부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더 많은 법률적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것은 대전제이다. 서울고법에서 새로운 길과 고민의 장을 열어주어 다행스럽다. 해운대구에서도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출구를 전향적으로 열어야 할 때다.



서정학 의원

‘제2 센텀시티’를 꿈꾼다

센텀시티 개발사업은 옛 수영비행장 118만㎡ 부지에 ‘미래형 첨단도시 건설’이라는 비전을 갖고 1997년에 시작되었으며, 10년만인 2007년 6월에 준공되었다.

센텀시티란 100% 완벽하고 100년 후를 내다보는 미래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이름으로, 허허벌판이었던 수영비행장이 지금은 영화·영상, 정보통신, 유통, 전시컨벤션 기능을 고루 갖춘 한국의 맨해튼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센텀시티는 부산하면 떠오르는 랜드마크로써 부산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 되었다.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해수욕장 위주의 한철 관광지였던 해운대를 미래 성장동력 산업인 지식기반산업과 관광산업이 어우러진 도시로 만들었고, 부산의 가장 성공적인 도시개발 모델인 지금의 ‘센텀시티’가 되었다.

해운대는 동서 간의 지역발전 격차가 큰 지역이고, 그동안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많은 정책을 시행하고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해운대해수욕장과 센텀시티 중심 권역과 반여·반송 권역의 생활여건 차이는 여전하다.

이러한 지역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이제 기대를 ‘제2 센텀시티’에 걸어보면 어떨까?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인근 188만㎡에 달하는 부지는 첨단 산단 개발의 최적지이고, 반여동과 반송동 사이에 위치해 두 지역의 발전을 함께 끌고 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난해 10월, 부산시가 추진해 왔던 이 지역의 ‘반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계획이 부지 확보 실패로 무산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센텀시티 및 석대·회동 도시 첨단산단과 연계해 ‘해운대 도시첨단산단 벨트’를 완성한다는 계획이 국토부에 사업제안서 조차 제출하지 못하고 좌초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실망감도 클 수밖에 없었다.

다행인 것은 최근 부산시에서 이 일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제2 센텀시티’ 조성 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점은 공장 중심의 단순한 도시형 산단은 미래의 해운대를 위해서도, 지역주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이다. 부산시와 해운대구는 이 지역의 개발방향을 기존 센텀시티를 능가하는 비즈니스, 주거, 쇼핑, 문화 등의 기능을 갖춘 ‘첨단복합도시’ 이상의 목표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해운대의 미래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꿈의 도시, ‘제2의 센텀시티’가 하루속히 건설되기를 빌어본다.

칼럼



유점자 의원

정당의 정책 홍보 현수막에 관해서...

“예 선생님.. 방금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고리1호기 폐쇄와 관련된 현수막은 정당의 정책을 홍보하는 현수막으로서 정당법37조2항에 의거 불법현수막이 아닙니다. 예..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먼저 해운대구청 ~~과 00과장님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도로변에 걸려 있는 정당홍보물에 대해서 정치적 의견이 다른 구민 혹은 도시미관을 걱정하는 구민들께서 가끔 구청에 “당장 불법현수막을 철거하라.” 는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번거롭고 귀찮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정당법을 설명하시면서 구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모습에 늘 감사드립니다. 2010년 1월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정당홍보물은 선거기간이 아닌 시기에도 특정인물에 대한 선거운동이 아닌 정당의 주장이 담긴 정책관련 홍보는 가능하게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시민들께 일반 현수막과 정당홍보용 현수막의 차이에 대해 홍보가 부족한 듯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라도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슈가 한참 지나간 정당정책 홍보용 현수막이 장기간 게시되어 있다가 반쯤 훼손되어 바람에 너털거리는 모습을 볼 때면 뭔가 법률을 떠나 적당한 물은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몇 군데 문의해본 결과 대략 30일 게시 후 자진 철거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 해운대구에서도 이 정도 수준에서 각 정당관계자와 구청간에 협약을 맺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훼손된 현수막에 대한 자진철거도 포함되어야합니다. 앞으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과하지 않은 수준에서 적당한 수량과 위치를 고려해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예쁜 디자인과 멋진 문구로 세상에 대한 걱정과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산을 사랑합니다. 해운대를 사랑합니다.



조영진 의원 (반여1, 4동)

행정 Service로 지역주민 애로 해결에 감사

2015년 7월31일 오후 찌는 듯이 내리쬐는 여름햇살의 무더위... 관내 아스팔트 도로포장 공사장을 확인하던 중 주변을 지나던 한 아주머니께서 힘없이 던진 간절한 말.

“도와주이소, 1년4개월 전부터 풀지 못한 애로가 있어요, 우리 집 좀 치워 주이소, 그동안 병원에 입원을 두 번씩 이나 했고 겨우 살아났습니더.”

깜짝 놀라 귀 기울여 들어 보니 이 주민에겐 방과 부엌이 갖추어진 두세대가 살 수 있는 집이 있고, 오갈 데 없는 정말 어려운 청년에게 측은한 마음이 들어 보증금 없이 월세만 몇 푼 받고 집을 사용하도록 해주었습니다.

머칠 후, 이 청년이 남은 방을 자기 친형에게 임차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여 주인은 흔쾌히 허락했으며, 약 한 달이 지난 후 행동거지가 이상해서 주의 깊게 관찰해 보니 세모자가 전부 정신이상자였습니다.

두 형제는 매일같이 동네 쓰레기, 각종 폐품을 주워와서 집에 쌓아 놓아, 주인과 이웃주민들은 악취와 각종 벌레가 들끓어 가져다놓은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 하루 일과였으며, 계속 치워도 쌓이는 오물에 집주인은 끝내 병원신세를 지게 되었고, 입원해서도 오물로 쌓여가는 집 걱정에 심한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찌할 방도가 없고 도저히 희망이 안보이던 차에 두 형제는 정신병원에 이송되었고 이후 1년4개월 동안 동주민센터, 구청에 쓰레기 더미를 치워줄 것을 집주인은 수차례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두 형제가 살던 방에 개인 물품이 있어서 정말 안타깝지만 치울 수 없다는 해당부서의 답변만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집주인의 간곡한 도움요청을 접한 이후로 본인은 매일 현장에 살다시피하며 실태를 파악하고 해당 00과장님께도 통화,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협의를 모색해 오던 중에 '8월 5일에 모든 쓰레기를 다 치워드리겠습니다' 고 청소행정과 00계장님으로부터 온 전화에 집주인과 주변 주민의 되찾게 될 평온한 모습을 생각하니 너무 기뻛고 집주인도 연락을 받고는 너무 고마워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8월5일 오후2시 구청·동 공무원, 자원봉사자, 집주인, 본인을 포함하여 20여명 모두가 한 몸, 한마음이 되어 불가능할 것 같은 청소를 2시간 만에 화물 트럭 2대로 겨우 끝낼 수 있었습니다.

코를 찌르는 악취와 오물, 개인사물은 거의 없고 주워온 매트리스는 라이터로 불을 질러 까맣게 타 대형화재에 노출될 위험천만의 상황이었습니다.

주민의 심부름꾼이자 대표로서 구청·동 공무원께 정말 미안하기도 하고 TV에나 나올법한 남의 일이라 생각했는데 우리 지역에 이런 일이 있다니...

정말 공무원 여러분께 고마움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이나 문화수준이 선진국과 다를 바 없는 와중에 빈곤이라는 그림자가 낳은 한 단면이라 봅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고 서로 양보하며 더불어 살아야 하는 이 시대에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책임의식과 시민의식, 기업가정신을 다시금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빈곤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주민을 위해 더욱 능동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며 행복도시 해운대를 위해 혼신을 다하는 해운대구청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칼럼



한병철 의원 (우1, 2동, 중1동)

해운대 더 베이 101 문제있다

지난 2015. 4. 10. 해운대구의회 해양레저특화사업 특별위원회는 3개월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 하면서, '더 베이 101'의 경우 요트 관광사업이 주가 되어야 하지만 식당과 카페 등 수익사업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였다.

특히 본의원은 더 베이 101의 경우 문화재 보호구역인 동백섬에서 독점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만큼, 동백섬 진입부분의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더 베이 101측에서 건물 외부 공유수면 위 공간의 점유사용료를 정당하게 내지 않는 이상, 외부 공유수면 위의 공간에는 테이블 설치를 통한 영업행위를 자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이후에 방문한 더 베이 101에서는 그 지적에 대한 이행이 전혀 되고 있지 않았다. 요트 관광사업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중이고, 공유수면 위의 공공의 공간은 더 베이 101만을 위한 외부 테라스처럼 사용되고 있었다. 해운대구의 감시감독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해운대구는 해당공간이 더 이상 특정업체의 편익을 위한 공간이 되도록 해서는 안된다. 차라리 구에서는 해당 공유수면 위에 한강공원과 같이 편의점을 설치하여 더 베이 101과 건전한 경쟁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더 베이 101측으로 하여금 수면위쪽으로 다리형태의 진입 도로를 개설하도록 하여, 외부에서 해운대 동백섬을 찾아준 관광객과 각종 빛 공해와 교통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구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현재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던 더 베이 101 뒤편 군부대 소유 부지가 60년 만에 시민 품으로 돌아오게 되어 해당부지를 유료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 세워지고 있고, 해운대 운촌마리나 항만계획이 세워지면서, 해운대 동백섬지역이 최대 300억 원의 국고 지원금을 받는 종합 해양 레저타운으로 개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운대 동백섬지역이 전국 최고의 해양관광레저타운으로 발전함에 있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이명원 의원 (반여1, 4동)

장작이 다 타버리면 불도 꺼지듯이 사실은 인간의 육체와 정신도 둘인 것 같지만 수명이 다하면 같이 없어져 버리는 하나로 보기 때문에 유교문화권에서는 죽음 이후의 삶은 없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련, 미래에 대한 온갖 걱정 때문에 현재 시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현재에 충실하라’는 뜻인 카르페 디엠!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다.

그러나 패자부활의 삶을 원하는 보통사람 뿐만 아니라 집착을 버리고 무소유의 삶을 살다간 많은 영적 스승들에게도 한 번 살고 나면 없어져야 하는 원 샷 인생보다는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서 바라보는 기독교나 불교의 이원론적 사유체계가 좀 더 설득력이 있었던 것 같다.

아이러니하게도 삶을 살았던 보통사람 중에 죽고 나서 내가 어떻게 될 건지 알면서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 청소년기에 갑자기 생겨나는 삶에 대한 고민의 출발점이지만 지금까지 그 누구도 속 시원한 답을 알 수 없는 영구 미제의 의문인 것이다.

바쁜 일상 속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달려가지만 열심히 달려 가보자. 나이가 더 들면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냥 살아야 하는 것이 삶이라는 사실에 순응하면서 다들 바쁘게 살면서 무심정한 자신의 모습이 한번 씩 놀라지만 말이다. 사리사욕을 채우다가 들려서 연일 가십거리가 되고 있는 최고 권력자들의 삶에 대한 가치관은 뭔지 사실 궁금하다.

긴 팔을 꺼내 입어보고는 갑갑해서 반팔 옷으로 갈아 입었는데 밤새 내린 비 때문에 한기가 느껴져 다시 긴팔을 꺼내 입으면서 문득 죽음 이후가 궁금해진다. 며칠 전 오랜 친구의 노모가 돌아가셨다. 당신 아들 친구의 구의원 당선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던 고마운 분인데 부디 좋은 곳으로 가시길 빌어본다.

아내와 함께 겨울배추를 심으면서 상추 모종도 조금 심어 놓았는데 물 만 주었는데도 쑥쑥 자라는 것을 보면서 주변의 일상이 온통 신비로 가득하다. 나무가 흔들리면 바람이 부는 때문이지만 사실은 흔들리는 것은 나무도 바람도 아니고 니 마음이라고 일갈한 옛 고승의 말을 언제나 깨달을 수 있을지!!

칼럼



김삼수 의원 (재송1, 2동)

개발과 보전에 대한 단상

해운대 복합 리조트 사업인 LCT 사업 중 주택부분이 성황리에 분양 시장을 이끌며 해운대 해수욕장을 둘러싼 고층 건물들의 정점을 찍었다고 본다. 이는 해운대의 명산인 장산에서는 해운대 해수욕장을 보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기도 하다. 어느 것이 정답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해수욕장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지역의 영향력 있는 모 인사는 지난 10년간 천지가 개벽할 만큼의 성과를 이루었다고도 한다. 맞는 말씀이다. 하지만 그러는 동안 거대한 고층건물에 해풍과 육풍의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해운대 해수욕장의 모래는 거친 파도에 쓸려 내려가 그 규모가 점점 줄어들게 되었다. 물론 국비로 모래를 구입하여 백사장을 확대하는 성과는 좋은 일이나, 애초에 모래를 쓸려나가지 않도록 고층건물에 높이 제한을 두거나 하였다면, 모래를 사기위해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쓰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도 생각해 보게 한다.

“최근 기후변동에 관한 정부 간 패널인, IPCC는 2100년 전 세계 해수면이 1m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한다. 이에 부산발전연구원이 이 수치를 부산에 적용할 경우 벌어지는 시나리오를 만들었는데 그 결과 해수면 상승이 1m일 경우 부산지역 모든 해수욕장은 물에 잠긴다는 결론이 나왔다. 부산의 소중한 관광자원이 사라지는 셈이 되는데 최악의 경우 해수면이 1m 상승한 상태에서 초속 67m가 넘는 슈퍼태풍이 온다면 어떨까? 초고층 건물 밀집지역인 마린시티, 세계 최대백화점이 있는 센텀시티까지 물에 잠기고 해운대해수욕장 배후 지역도 침수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부산발전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최악의 경우 부산 연안역의 50%가 물에 잠긴다고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다.

2012년 허리케인 샌디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던 미국 뉴욕의 경우 195억 달러를 투입해 방파제 등 구조물을 만들기로 했다.

하지만 구조물 건설은 단기적인 대책일 뿐 건축선을 바다에서 멀리 떨어지게 하고, 연안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을 금지하는 등의 도시계획 조례를 재정비하는 것이 장기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

—YTN 15. 09. 20기사 인용—

2100년이면 아주 먼 이야기지만 같이 여겨지지만 우리의 자녀들 · 손자들은 그때에도 살아있다는 것을 생각해야한다. 자연환경은 우리가 후손들에게서 빌려 쓰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인간은 훌륭한 존재임에는 틀림없으나, 자연의 법칙은 거스를 수 없는 것 또한 이치이다. 영화 “해운대”와 같은 일이 현실이 되기 전에 예방하고 대비해서 나 혼자 잘 살다가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들도 잘 살 수 있도록 아껴써야 할 소중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당부한다.



서정학 의원 (반송 1, 2, 3동)

통합 반송1동의 출범을 축하하며...

‘반송’이라는 지명은 [영남읍지]에 수록된 [동래부읍지(1871)]에 처음 나타난다. 과거 이곳에는 ‘반송(盤松)’이 많았는데, 당시 울창했던 소나무들이 없어지기 시작한 것은 6.25전쟁 이후 마구 잡이 벌목이 이루어지면서다. 옛부터 ‘반송’이 충효의 고장으로 잘 알려진 것이 ‘반송(盤松)’의 변함없는 깨끗함과도 연관이 있는 듯하다. 반송은 1968년 부산시의 정책이주지역으로 시내 수재민과 철도변 철거민들이 이주하면서 동세가 커져 1975년 반송1·2동으로 분동되었다. 이후 아랫반송지역인 반송1동은 1979년 또다시 반송1·3동으로 분동이 된다. 분동 당시 인구 3만명 내외였던 반송1·3동은 199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어 올 들어 1만8천여명이 되었고, 이에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동 36년만에 다시 하나가 되었다. 본래 분동은 쉬워도 2개의 동을 통합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들 한다. 반송1·3동의 경우도 지난 10월 1일자로 통합이 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2007년 처음 제기되었던 통합 논의가 8년 만에 실행된 것을 보면 동 통합이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반송은 도시속에 있으면서도 그 구성원들의 관계는 농촌지역의 특성을 가진 1차 집단적인 성격이 강하다. 옆집 사람도 잘 모르는 일반적인 도시민들과는 달리, 반송 주민끼리는 모르는 사람이 없다. 한마디로 ‘반송 사람’ 하면 다 통하는 마을이다. 이러한 지역의 특성을 두고 생각해 본다면, 아랫반송으로 지칭되는 반송1·3동의 통합은 행정적 측면보다 지역 정서적 측면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반송(盤松)’은 우리가 흔히 보는 키 큰 소나무와는 달리 땅에서부터 여래갈래의 줄기로 갈라져 부채를 펼친 모양으로 자란다. 화려하고 멋진 모습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가 함께 조화를 이루며 자라나는 그 모습이 반송주민들의 삶과 닮았다. 통합 반송1동으로 다시 하나가 된 ‘아랫반송’이 ‘반송(盤松)’처럼 각각의 구성원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번성해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마지막으로 36년만의 통합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모아주신 반송주민들과 이러한 주민들의 결정을 잘 이끌어 주신 통합추진협의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را 드린다.

칼럼



손유정 의원 (우1, 2동, 중1동)

세상에 없는 것 세 가지

세상에 없는 것 세 가지가 있다면 “비밀, 공짜, 정답” 이라고 한다.

대단히 공감되는 말이다. ‘비밀’ 이 없다는 말을 옛 어른들의 지혜로운 말씀에서도 많이 들어왔다. “낮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 그러니 비밀은 만들지도 말고 간직하지도 말라고 했다. ‘절대 말하지 마. 너만 알고 있어’ 라는 말은 그렇게 믿고 싶을 테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다반사이다. 비밀은 지켜지지 않는다는 말이다. 더 이상은 비밀을 만들지 말고 투명하게, 개방하고, 공유하고, 소통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그 다음은 ‘공짜’ 다. 공짜가 없다는 현실이다. 홍보 마케팅 문구에 공짜라고 쓰여 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속의 광고에서도 마찬가지로 공짜 안내를 많이 본다. 그러나 그 또한 진실이 아니다. 옛 어른들께서 “공짜면 양젓물도 마신다.”라는 예를 들어 공짜는 독이 있다고 알려 주셨다. 정말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 같다. 언젠가는 그 값을 치르게 된다는 속뜻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햇빛, 공기, 인사, 미소, 친절한 길안내 등 많은 무형의 공짜 선물은 존재한다.

그 다음은 ‘정답’ 이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에 ‘정답은 없다’ 라고 말 한다. 정답도 바라봄에 따라 시각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라는 말처럼 해석이 주관적이다.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맞다고 하는 것은 정해진 약속 안에서 존재하는 해답일 뿐이다.

세상이 유리처럼 투명하다. 이제 더욱더 선명하게 모든 것이 드러나고 스마트해 진 세상을 본다. 똑똑해진 세상을 살아가려면 얼마나 많이 배워야 할까? 그래서 평생학습이다. 배워서 깨닫고, 만나서 듣고, 직접 보아야 납득이 간다.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도 바로바로 손안에 컴퓨터인 스마트 폰으로 접속하고 검색하고 확인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한 장 남은 달력을 보며 올 한해도 비밀이 많았던 여러 사건, 결코 공짜가 아닌 다양한 무상 복지들, 그리고 미래 먹거리가 될 드론, IOT, 탄소산업, 게임산업 등은 우리에게 명쾌한 정답을 줄 수 있을까?

하이브리드시대라는 오늘날 무수한 이슈와 정보의 홍수 속에 세상은 더 많은 질문과 생각을 요구하고 있다. 비밀도 공짜도 정답도 없는 세상을 인정하면서 더욱 다양하고 투명해진 사회 분위기에 적응하기 위해 ‘생각의 힘’ 이 절실히 필요하다.

제9호

2015. 1. 1~2015. 12. 31

해 / 운 / 대 / 의 / 정

의정 스케치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선진의회



HAEUNDAE-GU COUNCIL 의정스케치

구·군 의장단협의회 개최 ▶



▼ 서울 강동구 의회 내방



▲ 필리핀 파라냐케 시장 일행 내방



▲ 경주시 의회 내방



▲ 필리핀 참전용사 해운대구의회 초청 방문

7대 개원 1주년 행사 ▶



제216회 정례회(기획관광행정위원회) ▶

▼ 제216회 정례회(의회운영위원회)



▼ 제216회 정례회(주민도시보건위원회)



▲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 제211회 임시회 본회의



▲ 해양레저특위 현장방문

HAEUNDAE-GU COUNCIL 의정스케치

해양레저특위 회의 ▶

▼ 자매결연(제천시 방문)



▲ 자매결연(하동군 내방)



▼ 경제자유구역청 방문



▼ 오순절 평화의마을 생활관 기공식



기장 고리원전 1호기 폐쇄 결의



해운대경찰서 치안정책설명회 개최



▲ 해운대구 기술교육원 부지 현장점검



▲ 해운대 해수욕장 현장 종사자 격려

총렬사 참배 ▶



해운대구청 열린정원 현장점검 ▶



▲ 해운대 해수욕장 봉사활동



▲ 국내연수



▲ 국내연수



▲ 의원연수

국외연수 ▶

▼ 국외연수



▲ 의회 체험교실 운영



▲ 공직선거법 설명회

제9호

2015. 1. 1~2015. 12. 31

해 / 운 / 대 / 의 / 정

의원 동정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선진의회



HAEUNDAE COUNCIL

일자	장 소	행 사 개 요	참석자
01. 05	신세계백화점	영화관람	의 장
01. 06	코모도호텔	부산여성연합회 신년회	오경미
01. 06	수영유토피아호텔	해운대참사랑봉사회 제10차 정기총회	황병두
01. 15	중구의회	의장단월례회	의 장
01. 20	구청대회의실	구새마을 문고 정기총회	의 장
01. 21	그린나래호텔	해운대팔각회 정기총회	손유정, 오경미, 한병철
01. 21	구청대회의실	새마을지도자구협의회 정기총회	오경미, 조영진, 한병철 손유정, 심윤정, 서강식 유점자
01. 26	서울올림픽파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의 장
01. 27	장애인근로사업장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	황병두, 서정학
02. 02	시장관사	시장관사 초청 만찬	의 장
02. 05	영도구 의회	의장협의회월례회및의정봉사대상	서강식
02. 10	문화복합센터	해운대구진로교육지원센터	의 장
02. 11	대회의실	해운대구새마을회 정기총회	의 장
02. 11	대회의실	민주평통1분기정기회의 및 설맞이 북한이탈주민초청행사	조영진, 손유정, 서정학
02. 12	문화복합센터	제28차 청년회 정기총회 및 회장단 취임식	황병두, 홍성운, 손유정, 조영진, 김삼수, 오경미, 한병철
02. 16	영화의 거리	영화의 거리 오프닝 행사	오경미
02. 27	문화복합센터	바르게정기총회	의 장
03. 05	해운대해수욕장	달맞이 온천축제	오경미, 김삼수, 임말숙, 정성철, 한병철, 손유정 유점자, 조영진, 심윤정
03. 06	구남로	해운대상인라디오 방송국 개국식	심윤정, 손유정
03. 11	그린나래호텔	해운대외식업지부 제42회 정기총회	임말숙
03. 18	문화복합센터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	조영진
03. 23	부산사회체육센터	국민생활관 개관 24주년 기념식	의 장
03. 30	영화의 거리	해운대 영화의 거리 준공식	손유정, 오경미, 한병철, 김삼수 심윤정, 홍성운, 유점자
04. 01	오순절평화의마을	오순절평화의마을 희망의집 기공식	이명원, 손유정, 김삼수
04. 02	남구의회	구군의장단 월례회	의 장
04. 07	중회의실	치안설명회	의 장
04. 23	청사포	청사포 마을회관 준공식	손유정, 유점자, 심윤정 최영곤
04. 26	장산인조구장	제34회 연합회장기 축구대회	임말숙, 오경미, 최영곤 유점자

의 · 원 · 동 · 정

일자	장 소	행 사 개 요	참석자
05. 07	북구의회	구군의장단 월례회	의 장
05. 07	문화복합센터	제1회 해운대구효행대상	손유정, 김삼수, 오경미 한병철, 조영진
05. 11	백스코	Knn창사20주년 기념포럼	의 장
05. 12	재송2동	재송2동경로잔치	김삼수
05. 12	문화복합센터	어린이집 연합회 스승의날 기념식	정성철, 조영진, 오경미 한병철, 김삼수, 임말숙 유점자, 최영곤, 손유정
05. 15	한화콘도	고려인 노인대학 모국방문 환영식	의 장
05. 19	문화복합센터	새마을지도자 방역발대식	의 장
05. 20	더베이	재난안전한국 훈련	의 장
05. 21	좌동재래시장	좌동재래시장 주차장 개소식	임말숙
05. 21	문화회관	러브인 매직 공연 개최	의 장
05. 21	대회의실	민주평통 2분기 통일의견수렴 및 제16기 임기말 정기총회	유점자, 조영진, 임말숙 오경미
05. 27	그랜드호텔	평생교육&주민자치컨퍼런스	의 장
05. 29	백스코	제18회 장애인 재활증진대회	황병두, 손유정, 오경미 임말숙
05. 29	이벤트광장	2015 샌드북 콘서트개막식	의 장
05. 30	해운대해수욕장	모래축제 개막식	의 장
05. 31	보건소테니스장	제18회 해운대구청장배 클럽대항테니스대회	최영곤 임말숙
05. 31	반송중학교	제27차 체육대회 및 회원가족 한마당	오경미, 황병두, 서강식 서정학, 임말숙, 정성철 조영진, 김삼수, 손유정
06. 01	해운대해수욕장	해수욕장 개장식	의 장
06. 01	송정해수욕장	해수욕장 개장식	홍성운, 손유정, 임말숙 최영곤, 조영진, 황병철 정성철
			임말숙, 최영곤, 유점자
07. 02	금정구의회	구군의장단 월례회	의 장
07. 07	문화복합센터	2015양성평등주간기념식	김삼수, 오경미, 한병철 황병두, 임말숙
07. 08	영산대학교	제1회 에너지환경 정책포럼	의 장
07. 11	이벤트광장	해운대와 함께하는 희망페스티벌 힘을내요슈퍼파워!	손유정, 유점자, 임말숙 한병철
07. 15	국회회관	원전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토론회	의 장
07. 21	씨제이헬로비전	개원1주년 기념 인터뷰	의 장

HAEUNDAE COUNCIL

일자	장 소	행 사 개 요	참석자
07. 23	그린나래호텔	제17기민주평통해운대협의회 출범식	정성철, 손유정, 한병철 서정학, 조영진, 황병두 임말숙, 오경미
07. 28	태백산	노조간부와의 간담회	임말숙, 이명원, 심윤정 황병두
07. 31	백스코	2030부산등록엑스포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 창립총회	의 장
08. 01	구남로	제20회 바다축제 물의 난장	최영곤, 정성철
08. 01	송정해수욕장	제20회 송정해변축제 개막식	의 장
08. 05	연제구의회	구군의장단 월례회	의 장
08. 06	해운대해수욕장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의 장
08. 18	중회의실	통합방위협의회의 개최	의 장
09. 01	씨제이헬로비전	의장 인터뷰	의 장
09. 02	수영구의회	구군의장단 월례회	의 장
09. 10	재송2동	별천지경로당 개소식	의 장
09. 17	우2동주민센터	동백회의 개최	의 장
09. 18	대천공원	7080콘서트 공연	의 장
09. 19	수영강시민공원	찾아가는 가을음악회	의 장
09. 20	장산인조구장	구청장배 축구대회	이명원, 임말숙, 황병두
09. 23	대회의실	한가위북한이탈주민초청위로행사	임말숙, 최영곤
10. 01	반송1동주민센터	통합반송1동개소식	의 장
10. 03	대천공원	제10회 해운대사랑콘서트	서정학, 황병두
10. 06	동부산대학	제9회 북한이탈주민 합동결혼식	의 장
10. 07	기장군의회	구군의장단 월례회	의 장
10. 08	문화복합센터	2015나눔천사의 날 기념행사	의 장
10. 09	영산대학교	제1회 반송한마음 축제	조영진, 오경미, 손유정
10. 15	엘시티	엘시티 성공기원 선포식	황병두, 서정학
10. 18	해운대해수욕장	제1회 구청장배 비치사커대회	의 장
10. 22	해운대건강보험공단	1일 명예지사	의 장
10. 24	문화복합센터	문화예술아카데미작품발표전시회	의 장
10. 27	반여2동	반여동2동배수지현장시찰	의 장
10. 28	재송1동	재송1동새마을부녀회 경로잔치	홍성운
10. 30	기장군 월드컵빌리지	새마을회체육대회	김삼수
10. 30	문화복합센터	제2회 해운대구 다문화가족축제	의 장
10. 31	장산헬기장	장산제	오경미, 손유정, 한병철 유점자, 서창우
10. 31	문화복합센터	제3회 해운대구 복지박람회	의 장

의 · 원 · 동 · 정

일자	장 소	행 사 개 요	참석자
11. 01	기장실내체육관	제22회 구청장배배드민턴대회	손유정, 오경미, 임말숙
11. 10	반여2동민방위교육장	생활안전체험관 개소식	서강식, 조영진
11. 14	대천공원	주민평생학습축제	의 장
11. 14	문화복합센터	제3회 행복만들기문화운동	의 장
11. 23	영화의 전당	영산대학교 개교33주년 기념음악회	의 장
11. 24	문화회관	제14회해운대구사진가회 회원전	의 장
11. 25	구청대회의실	민주평통제17기 2차정기회의	의 장
12. 01	이벤트광장	2015년 빛의거리 점등식	임말숙, 서강식, 오경미 유점자, 한병철, 서창우 손유정, 조영진, 서정학 김삼수, 최영곤
12. 01	해운대구청	해운대구청열린정원준공식	의 장
12. 02	서구의회	구군의장단 월례회	의 장
12. 02	청소년수련관	2015년드림스타트사업 성과보고회	의 장
12. 05	기장실내체육관	제16회구청장배태권도대회	임말숙, 서창우, 손유정
12. 05	해수욕장	해운대비치 아이스링크개장 기념행사	임말숙, 손유정, 김삼수 서창우
12. 08	중회의실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의 장
12. 10	아동보호기관	부산동부·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개관식	의 장
12. 11	문화복합센터	제8회자원봉사대상시상식	의 장
12. 12	반여2동	반여2동상가상인회 송년의 밤	의 장
12. 14	조선비치호텔	제2회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수기발표 및 사업평가회	의 장
12. 16	석대동	해운대우체국건립공사기공식	의 장
12. 18	문화복합센터	2015년 해운대를 빛낸 민관협력시상식	의 장
12. 21	청와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오찬간담회	의 장
12. 22	마리나뷔페	해운대지역 자활센터 자활사업보고회	황병두, 임말숙, 오경미 한병철, 서창우
12. 23	문화복합센터	2015년 해운대구 장학금 장학증서 수여식	의 장
12. 29	문화복합센터	행복도시 해운대 만들기를 위한 공동체 활성화 워크숍	의 장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선진의회





해운대구의회는

의정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높이고 보다 많은
구민 참여를 위해 모든 의회 진행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구민 여러분과 더욱 더 완전한 소통을 이루기 위해
의회의 문턱을 낮추고 항상 열린 마음으로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방청안내

구민 여러분께서는 방청을 원할 경우에는 의회사무국에서
방청권을 교부받아 방청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안내

진정서는 일정한 양식에 구매됨이 없이
다양한 형식으로 의회에 제출하실 수 있으며,
그 절차와 방법은 구의회에서 신속 정확하게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청원 안내

청원을 원하시는 분은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에 성명 날인 후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612-70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2로 11

TEL 051. 749. 4091 FAX 051. 749. 4099 <http://council.haeundae.go.kr>

발행처 해운대구의회 발행인 의장 이문환 편집 의회사무국
